

定慧社

불기 2554년 겨울 | 제40호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독일시

원승圓昇 | 치문

오	심	사	추	월
吾	心	似	秋	月
벽	담	청	교	결
碧	潭	淸	皎	潔
무	물	감	비	론
無	物	堪	比	論
교	아	여	하	설
敎	我	如	何	設

내 마음 가을 달인가

맑고 깨끗한 호수인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거늘

어찌 내게 말하라 하는가.

「한산시」

추	월	교	백	백
秋	月	皎	白	白
죽	림	풍	수	수
竹	林	風	颯	颯
만	법	유	여	심
萬	法	唯	汝	心
부	설	하	호	재
復	設	何	乎	哉

가을 달은 하얗디 하얗고

대숲 바람소리 수수 한다.

만법이 오직 그대 마음 뿐이거늘

다시 말해 무엇 하겠는가.



定慧社

불기 2554년 | 통권 제40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경인년 하안거, 동안거 결제 법어 | 범일 보성
- 6 기획 | 송광사의 선지식
나옹화상 懶翁和尚 혜근慧勤 | 편집실
- 10 지대방 이야기 하안거
- 16 경전 한 구절 1
범구경
- 17 지대방 이야기 동안거
- 22 정혜탐방
송광사 울주,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
- 29 특별기고
金剛山 九龍淵 石壁 彌勒佛 三字의 由來
| 무각사 회주 청현스님
- 33 경전 한 구절 2
青梅祖師 十無益頌
- 34 목우단상 하안거
- 40 목우단상 동안거
- 50 바람 소리 한자락
한시 | 원승
가피 | 원산
- 54 詩가 있는 풍경
명적, 일현, 수용
혜적, 동은, 수암
덕인, 우암, 시안
- 59 정혜사 후원안내
- 60 학인기고
수행의 시작과 끝 -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 심법
인도 성지순례 | 혜철
- 69 목우만평
바다 | 편집실
- 70 경인년 강원 소식
- 72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어머니’ 조계산에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으로
자리잡은 송광사.
올 한 해도 승보도량으로써
그 자리를 깨끗이 지켜나가길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일귀(강주)
편집인 | 준상(입승)
편집장 | 정목
편 집 | 혜연
사 진 | 시안

발행일 | 불기 2555년(서기 2011) 2월 1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山居

山間勝槩多 准擬人間樂
松風琵琶聲 楓林綺羅色
獨坐足見聞 不要知得失
人來慰寂寥 我笑渠齷齪



이 산속의 빼어난 풍광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앞서네.
솔바람은 우우 거문고 타고
단풍 숲은 기가 막힌 비단색이네.
홀로 앉아 보고 듣는 이것으로 족하니
얻고 잃는 것은 이미 내 알 바 아니네.
그대 날 찾아와 적막함을 위로 하는가
나는 미소 짓는데 그대는 심각해 하네.

청매青梅 인오印梧 (1548~1623) 조선중기 승려, 승병장.

청허휴정(서산대사)에게 출가. 묘향산에서 살다가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3년간 공을 세우고, 부안 변산 요차봉了嗟峰 마천대摩天臺에서 월명암月明庵을 짓고 살았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연곡사에서 76세에 입적. 저서로는 『청매집』 2권 1책, 십무익송「十無益頌」이 있다.

경인년庚寅年

하안거 결제 법어法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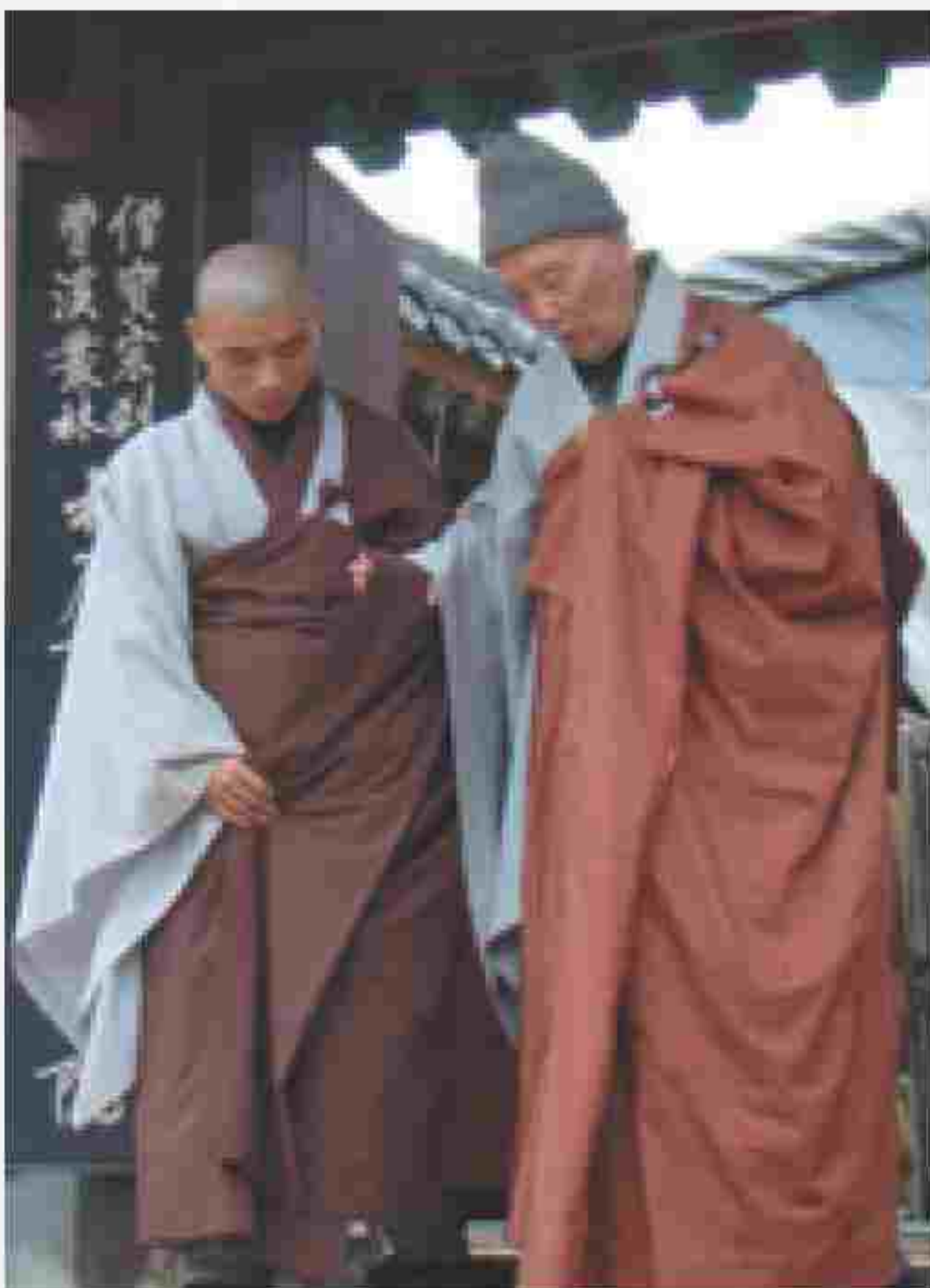
梵日 普成 범일 보성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오늘은 불탄절佛誕節 다음에 맞는 의미意味있는 삼하결제三夏結制날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만일萬一에 할애사친割愛辭親하고 유성출가踰城出家해서 고행정진苦行精進 끝에 성불成佛하지 못했다면 사월팔일四月八일이 무슨 의미意味가 있겠습니까?

부모父母에게 맛있는 음식飲食과 따뜻한 옷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은 세간世間 효도孝道요, 출가수도出家修道해서 견성성불見性成佛함으로써 부모를 사후死後에 이고득낙離苦得樂케 하는 것은 출세간出世間의 효도孝道니 금일今日에 결제結制한 대중大衆은 애착愛着을 영단永斷하고 열심熱心히 정진精進해서 올 여름에 꼭 칠통漆桶을 타파打破하고 인천안목人天眼目을 열어 출가효자出家孝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혜능불고빈모기惠能不顧貧母飢하고 동산불구맹모사洞山不救盲母死라
유념출가성대도唯念出家成大道하야 비도부모구인천非徒父母救人天이로다.
육조스님은 가난한 어머니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동산스님은 눈 먼 어머니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것을 건져 드리지 아니하였다. 오직 출가해서 큰 도를 깨달아 부모뿐만 아니라 천상인간天上人間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였도다.

백척간두좌저인百尺竿頭座低人은 수연득입미위진雖然得入未爲眞이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야사 시방찰토현전신十方刹土現全身하리다.
백자 되는 낙수대 끝에 앉은 사람은 아무리 얻었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요,
백자 되는 낙수대 끝에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만 시방세계에 온갖 이치가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어행수탁魚行水濁하고 조비모락鳥飛毛落이니라.
고기가 움직이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아가면 깃털이 떨어지느니라.

타주장打柱杖 삼하三下하고 하좌下坐하다.
주장좌를 세 번 구르고 자리에서 내려오다. **定慧社**

경인년庚寅年
동안거 결제 법어法語

梵日 普成 범일 보성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사람 만 명 공양하는 것보다 부지런한 사람 천 명 공양한 공덕이 더 크고, 부지런한 사람 천 명 공양한 것 보다 중노릇 잘하는 스님 백 명 공양한 공덕이 더 크고, 중노릇 잘하는 스님 백 명 공양한 것 보다 정진하는 스님 열 명 공양한 공덕이 더 크고, 정진하는 스님 열 명 공양한 공덕 보다 선지식 한 분에게 공양한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총림 식당에 가면, “깨치지 못한 사람은 시주의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렵고, 깨친 사람은 시주의 천금千金을 능히 소화한다.”고 써붙여놨다고 하니 체발염의剃髮染衣하고 공부工夫를 게을리 한 인과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오대산 한암스님은 틀니 씻은 물을 버리지 않고 도로 마셨고, 그 당시 동산스님이 원주를 사셨는데 시장에 가서 장 보고 남은 돈으로 고무신을 사 신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동산스님께서 범어사 조실로 계실 때 대중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부인은 상주물常住物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정진의 첫걸음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동결제수冬結制 대중에게 서산西山스님 법문을 한 마디 일러 드리고자 합니다.

영가영겁寧可永劫에 침륜생사沈輪生死언정

불모선정해탈자不謀禪定解脫者是 선가지안禪家之眼이요

불간타인비不看他人非하고 상자견기과자常自見己過者是 선가지족禪家之足이니라.

차라리 무량겁을 생사에 빠져 헤매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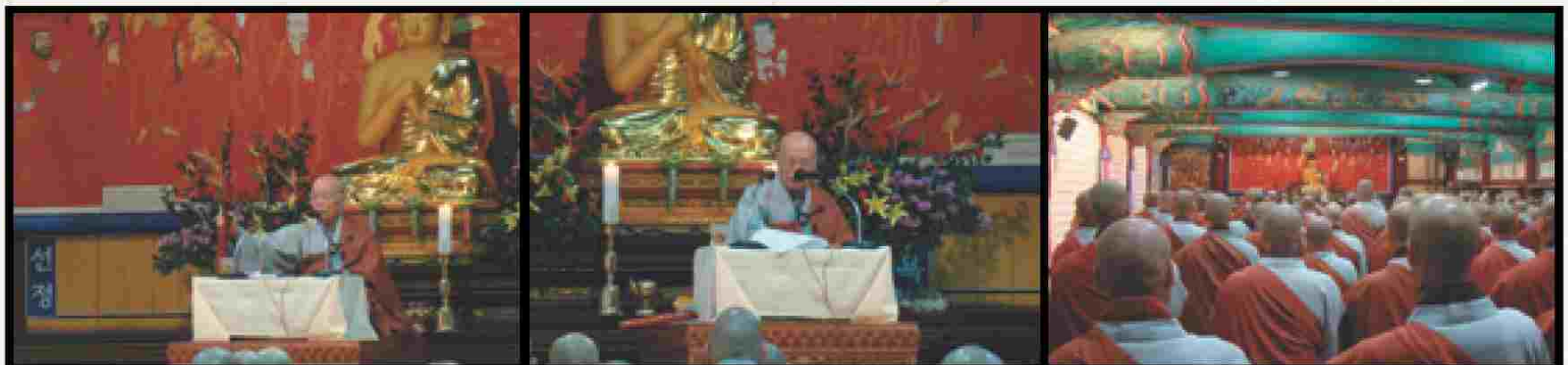
참선해서 해탈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참선하는 이의 안목이요

남의 허물을 일체 보지 않고 항상 자기 허물만 살피는 것이 참선하는 이의 행이니라.

수지일납천창리誰知一納千瘡裡에 삼족금오반야비三足金烏半夜飛오.

천 번이나 엮어맨 누더기 옷 속에서 세발가진 금 까마귀가 한밤중에 날아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주장자柱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定慧社





나옹화상 懶翁和尚 혜근 慧勤

편집실



송광사 대웅보전 화상단 (왼쪽부터 나옹, 지공, 무학스님)

“차사 창건주 혜린선사此寺 創建主 慧璘禪師, 원력수생 중흥조도願力受生 中興祖道, 해동불일 보조국사海東佛日 普照國師, 여시차제 15국사如是次第 十五國師, 위작증명 법사 지공·나옹·무학 3대화상爲作證明法師 指空·懶翁·無學 三代和尚.”

송광사의 예불문 팔정례 중 일곱 번째 구절이다. 여기에는 송광사의 창건주이신 혜린慧璘 선사와 중흥조이신 보조 국사를 비롯한 16국사에 이어 조선 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우신 ‘지공·나옹·무학 3대 화상和尚’이 등장한다. 그리고 송광사 대웅보전 내에는 불단 좌측 벽, 조사단 벽화 옆에는 이 세 분 고승의 영정을 모신 ‘화상단和尚壇’ 벽화가 모셔져 있다. 세 분 모두 고려 말 조선 초의 고승들이시며 송광사에서 주석하셨던 분들이시다. 개신교 세력의 불교 폄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이 세 분의 스승과 제자 분들 중, 여말麗末 송유척불崇儒斥佛의 기치를 드높이며 득세했던 신진 사대부 세력에 죽음으로 항거하며, 쓰러져가던 불교를 수호하고자 하셨던 나옹 혜근懶翁 慧根 스님의 행장을 되짚어가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직하다.

나옹화상 혜근(懶翁和尚 慧勤, 1320~1376)은 고려 말의 고승이다.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헌江月軒이다. 선관서영膳官署丞 아서구牙瑞具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출가하기를 원하였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21세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無常을 느끼어 출가를 결심하고, 문경에 있는 공덕산 묘적암妙寂庵에 있는 요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그 후 전국의 사찰을 편력하다가 1343년(충혜왕4) 양주 천보산 회암사檜巖寺에 4년간 머물며 정진한 끝에 크게 깨달았다. 이 절에 우거하고 있던 일본 승 석옹石翁에게 깨달음을 인가 받았다.

27세 때인 1374년(충목왕 3) 원나라로 건너가서 연경燕京 법원사法源寺에 머물렀다. 그 곳에서 몇 년간 인도 승려 지공指空의 지도를 받으며 지내고, 정자선사淨滋禪寺에서 평산처림平山處林을 만난다. 지공과 평산처림은 혜근의 선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후 혜근은 중국의 산천을 수년간 두루 유람하며 구도에 전념하다가, 이를 들은 원나라 순제順帝의 명으로 연경의 광제선사廣濟禪寺에 머물게 된다. 그곳에서 크게 법회를 열어서 많은 고관과 고승 앞에서 설법하여 큰 감명을 주었다. 수년간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유람 생활을 하던 혜근은 지공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1358년(공민왕 7)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오대산 상두암象頭庵에 머물렀다. 공민왕은 그를 왕사王師로 봉하였다. 이후 왕과 태후의 간곡한 청에 의하여 몇 년간 신광사神光寺에 머물면서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이후 여러 산을 유람하던 그는 49세 때에 병으로 오대산 영감암靈感庵에 머물렀고, 그 뒤 공부선功夫禪을 주관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1371년 왕으로부터 금란가사와 법복法服·바리를 하사받고 ‘왕사대조계종사선교도총섭근수본지중흥조 풍국우세보제존자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勤修本智重興祖風國祐世普濟尊者’에 봉해졌다. 1377년 스스로 예언한 바에 따라 57세, 법랍法臘 37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그는 간화선看話禪의 입장을 취하였는데, 종래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이나 조계종과는 다른 임제臨濟의 선풍을 도입하였고 조동종曹洞宗의 요소도 도입하여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다. 또한 그는 염불을 중요시하였고, 이는 이후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염불을 하면 삼악도三惡道에서 벗어나고 정각正覺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는 고려 말 보우普愚와 함께 조선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운 위대한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명으로 밀양 영원사營源寺로 옮기던 중 5월 15일, 나이 56세, 법랍 37세로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관심은 고려 말 혼란시기에 방황하는 민중의 정신적 구제에 있었다. 조정과 밀착되어 있던 다른 고승들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대중을 교화하고자 누구보다 많은 계송을 짓고, 불교 가사歌辭, 선시를 남겼다. 영남지방에는 그에 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그의 대중 포교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행장을 남기고 가셨던 나옹 스님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는 것은 나옹의 출가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척불의 시대적 상황에 온 몸으로 맞서다가 입적하셨기 때문이다.

나옹 스님의 나이 스무 살 때, 가까운 벗이 죽음에 이르자 그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하고 물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말하기를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여 슬픔만 더한 그는 그 길로 경북 문경의 공덕산功德山 대승사大乘寺 묘적암妙寂庵으로 달려가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몸을 던져 삭발하고 사미계를 받았다. 그게 묘적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요연선사를 떠날 무렵, 그가 물었다. “형체가 없어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물체가 없어도 작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수행하여야 터득할 수 있습니까?”하고 말이다. 그러자 요연은 답하기를 “그것은 나도 너와 같이 모를 뿐이다. 찾아볼 만 한 곳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라.”고 했으니 그만 산을 내려와 전국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다가 1344년, 경기 양주의 회암사檜巖寺에 다다랐다.

그 후, 1374년 회암사를 떠나 원나라로 향하여 1358년 다시 귀국하기까지 10년 동안 그의 스승인 제납박타提納薄陀 지공指空을 비롯하여 무학대사 자초(自超 : 1327~1405)를 만나기도 했다. 귀국한 후에는 오대산과 구월산, 그리고 금강산을 떠돌다가 1370년에 다시 회암사로 돌아와 머문다. 왕사로 임명된 후 잠시 송광사에 머물기도 했지만, 스승인 지공이 입적하자 이내 회암사로 돌아와 1374년 봄부터 회암사의 중창불사를 시작했으나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말았다. 절을 살리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윽고 중창불사가 끝난 1376년 4월 15일의 회암사 모습은 이색이 지은 천보산 회암사 수조기天寶山 檜巖寺 修造記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집이 모두 2백 62칸이요, 불구佛軀는 15척尺이나 되는 것이 7개요, 관음상觀音像은 10척으로서 각전覺田이 시주한 것이다. 크고 웅장하고 미려하기가 동국東國에서는 제일로 이것을 보기 위하여 강호에서 모여드는 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이런 절은 비록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낙성식 문수회를 여는 날, 구름이 일듯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부대중의 수효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았다고 한다. 그것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여들었으니 가히 나옹의 법력은 나라 안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사대부와 부녀자는 말할 것도 없었고 농경사회에서의 4월 15일은 한창 바쁜 농사철임에도 그것조차 팽개치고 모여든 범부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법석을 이루었으니 왕성해져가는 불교의 신앙심을 바라보는 유학자들이 가만 있을리 있었겠는가. 그들은 하나같이 기이한 현상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왕명으로 하여금 나옹을 개경과는 거리가 먼 경남 밀양의 영원사(靈源寺)로 추방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옹은 호송관인 탁첨(卓詹)의 인도 아래 가마를 타고 하필이면 스님들이 입적해야만 지나가는 문인 열반문(涅槃門)을 통해 절을 떠났으며 5월 3일 한강에 다다랐다.

그로부터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1주일이 흐른 끝에 여강에 다다랐지만 출발할 때부터 이미 발병하여 몸이 좋지 않던 것이 급기야는 운신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렇게 이 곳 신륵사 동대의 강월현에 머물다가 입적했으니 그날이 바로 5월 15일 진시(辰時)였다. 강월현 바로 아래 바위에는 당시 다비를 했다고 알려진 자리의 소대(燒臺)인 듯, 움푹 파인 홈에는 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왕사(王師)였던 신분임에도 갑자기 추방을 당하는 것과 보름 만에 생긴 병으로 불현듯 숨졌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기에 어떤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당시 꺼져만 가던 불교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한 호법(護法) 의지의 피력이 아니었을까? 定慧社



여주 신륵사 강월현

출가

경본京本 | 치문



From the first time I studied Buddhism I knew I wanted to be a monk. Practicing Meditation, Morality and Wisdom, and teaching Buddhism to others, I was sure “this is the way I need to in this life.”

내가 처음 불교를 배울 때부터 나는 내가 스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종교적 명상, 도덕, 지혜 그리고 여러 사람들 불교를 가르치는 일, 이 길이 이 번 생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In St. Louis, USA, my hometown, I attended a Korean Jogye Order temple, “Buddhanara Temple.” Learning from the Juji sunim, Bhikkhni Songak sunim. I was introduced to korean buddhism and Zen Practice When I saw photographs of korean Temple

and monks and nuns, I felt I had a deep connection with this tradition of Buddhism. I took a two-week trip to korea, visiting Songgwang-sa, Musang-sa and elsewhere, with my college friend 전홍준씨. When I returned to the USA Songak sunim asked me. “Do you want to be a monk in korea?” with a very grateful mind I said “Yes!”, and started to prepare to “Leave home(출가)” Last year on July 24th I arrive at Songgwang-sa. I received the Sami Precepts(사미계) on March 27th and entered Kangwon on April 8th of this year.

나는 내 고향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조계종 붓다나라 절(불국사)에 다니면서 주지스님 인 비구니 선각스님에게 한국불교와 참선에 대해 배웠다. 내가 한국 절과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사진을 보았었을 때 나는 불교의 전통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느꼈다. 나는 대학 친구인 전홍준씨와 함께 2주간의 한국 여행을 하면서 송광사, 무상사 등 여러 곳을 다녔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선각스님은 “한국에서 스님이 되기를 원해요?” 묻자 나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출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7월 24일에 송광사에
도착했고 올해 3월 27일에
사미계를 받았고 4월 8일에
강원에 입방했다.

I myself, and People every
where are caught in
Samsara(윤회) not only by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in
this Modern World, fall into
materialism, we are destroying
our environment, Causing war,
exploiting, people and
degrading our human,
when I saw this and looked for
the only religion or philosophy
that solved these problems was
Buddhism. And me, korean
Buddhism and Zen practice, the
right way of doing.

I came to Songgwang-sa to learn
and practice this tradition, in
otradito share what find with
people I have karmic affinity
with, whether, in America,
korea, or anywhere in the world.

나 자신과 사람들 모두는
물질주의로 타락하고 환경파괴,
전쟁, 이기적 착취, 인간성
상실의 현대사회에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학시절 이것들을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철학의 돌파구는 불교라고
찾았다. 그리고 나에게

한국불교와 참선이 수행의 바른
길이다. 나는 내가 얻을 것을
나와 숙명적인 인연이 있는
미국, 한국 또는 세상 곳곳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전통을 배우고 수행하기
위해 송광사로 왔다. [定慧社]

봄

법경法鏡 | 치문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것 같다.

그 눈이 거의 다 녹았을 때
송광사에 왔다.

버스정류장에서 계곡을 따라
감당하기 버거운 제법 큰 걸망을
메고 올라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퍽 따뜻하고 좋은
날씨였다.

세속에서 모든 인연들을
정리하고 꽤나 낯선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다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원에 도착하니 인상 좋은
지객스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안내된 방으로 가보니
먼저 도착한 스님들이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같이 합류하여 즐기는(?) 동안
대기시간이 흘러가고 강원에
입방했다.

큰방 생활이 낫설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해 갔고, 대중생활이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짜진 일과대로 반복된 생활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며 무더위의 한 가운데까지 왔다.

유난히 지루하고 기나긴 여름이다.

더위에 지쳐서인지

아직도 겨울이 멀기만 한데 벌써 내 마음은 따뜻한(?)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 **定慧社**

송광사 치문 여름나기

일몽日夢 | 치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을 보내기는 처음인 것 같다. 송광사 여름이 많이 덥다고 말만 들었지 직접 겪어 보니 장난이 아니다. 온도도 높지만 습도가 정말 높다. 평균 70%이상인 것 같다. 출가하기 전에는 여름이면 시원하고 짧은 옷차림에 에어컨이다 선풍기다 하며 그렇게 더운 줄 몰랐는데 출가하고 나서는 옷차림부터가 덥다. 지대방과 취침시간 외에는 항상 적삼을 입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는 나에게는 좀 힘들다. 거기다가 만의 장삼까지 수하면 거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땀으로 샤워를 하는 정도다. 나뿐만 아니라 치문반 도반들도 그렇고 강원 전체 아니 사중 전체 스님들이 다 그럴듯하다. 치문경훈 내용 중에

夏則忍熱(하즉인열)하고

冬則忍寒(동즉인한)하며

能自守節(능자수절)이라고

출가자는 여름이면 더위를 참고

겨울이면 추위를 참아 스스로

절도 있는 생활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출가자로서 참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전에는 몰랐는데 출가하고 나니

스님으로써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지켜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한 마디로

머트러운 행동보다 위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아직 속가

습이 많이 남아 있고 익숙지

않아 어색하고 잘 안되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몸에 익숙해져 가고

강원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그러다 보니 송광사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작년

9월에 와서 행자생활부터 시작해

사미계를 받고나서 다시 강원

입방해 봄 산철을 지내고

하안거가 거의 다 끝나간다.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겉모습이 많이 바뀌어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속명보다 일몽이라는 법명이

편하게 들린다. 절에 들어오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이

정말 많다. 치문반에 좋은

도반들도 많고 주위 스님들이나

윗반스님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신심도

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직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은사스님,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 아직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님,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형제들의 빈자리를 채울 형,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속가 누이 되는 아도스님, 출가하기 전 주변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30년 동안 살아온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지진 않을 것이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후회 없이 생활하고 나보다는 주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강원생활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 어서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다. 定慧社

마시지 않아도 취하는...

정원淨圓 | 치문



“스님은 최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치문반 수업 도중 강사스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도반들이 웃기 시작했고, 명적스님이 말했다.
“정원스님은 원래 말이 없습니다.”
도반들이 더 크게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강사스님의 질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인 것 같아 그냥 도반들을 따라 같이 웃었다.

나는 말이 너무 많다.

속가에 있을 때는 학교 사람들과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날도 동아리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 술을 마시던 밤이었다. 한참을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들이켰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물맛인지 술맛인지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 같았다.

동기 여자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 하며 수군거렸다. 어쩌면 나는 여자애들이 술자리에는 머물고 싶고, 술을 너무 마시면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 물 잔에 현식해 놓은 소주를 들이켰는지 모르겠다. 후에 시간이 흘러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내게 말해줬는데, 술에 취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맨 정신에 술 취한 사람들 보는 것이 훨씬 재미있단다. 가만히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통해 나의 과거가 보이고,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던 내가 싫어진다. 가만히 입을 다물면, 가끔 웃음이 난다. 定慧社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일각一覺 | 사집



흔히 송광사의 여름 즉,
하안거가 힘들다고들 한다.
봄엔 월반하여 한 학년이
올라가고 신입 방부자들의
강원생활 적응에 전력하느라, 또
삼월불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반이 지나가고 가을엔
전승련(전국승가학인대회)대회
준비로 축구연습 하다보면(일명
'공차다 보면') 훌쩍 가버리고
겨울엔 동안거 반철만 지나면
월반준비로 인한 기대감에
그다지 지루하지 않게 지나간다.
그러나 하안거는 석 달의 긴
시간과 특히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한철 나기가 쉽지 않다.
선풍기 한 대 없는
큰방(대중들이 공양하고 자는 등
대중생활 장소)에서 발우공양을
하고 있노라면 적삼 안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흐른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게 밥을 먹는 건지

고행인지 운력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간다.

유일한 쉼터인 지대방마저 그
습하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반 스님들도 하나둘
지대방을 떠나 그늘진
도서관으로 향한다.

한 마디로 더워서 차라리
공부하러 가는 게 낫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새벽예불 직후의 108배,
찰중스님의 죽비에 맞춰
강원스님들 모두 절을 하는데
제법 속도도 빨라 끝나고 나면
가사장삼과 좌복이 흠뻑 젖는다.
108배하는 10분이 그날의 모든
피로를 이끈다.

송광사가 습한데다 냉방시설
없이 고집하며 사니 하루에
샤워를 3번 하고 속옷은 2번,
적삼은 매일 갈아입게 되니
신병정리 하는 데만 두 시간이
걸린다.

단지 더운 것만이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속세에서
겪어 보지 못한 급격한
체력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졸리는 건 기본이요, 허리 펴고
앉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도 자주
경험하는데 그럴 땐 상급
소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중생활을 좀 열외하고 쉬고
싶은 마구니의 유혹에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다.

강원에서 맞는 두 번째 여름, 난
이 조건에서 내 자신을 가다듬고
있는가?

한참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장관
때를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난
냉난방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여름엔 땀을 흘리고 겨울엔
두껍게 옷을 입는다.

자연이 말뜻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듯 나도 또한 주위환경에
스스로 그러하다. 定慧社

법정스님께

혜연惠然 | 사집



스님이 떠나신 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났군요. 당시 병원에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버티시다가 갑자기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시간 만에 입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신 곳에서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원하셨던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 계신지요.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 ‘무소유’란 단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소유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송광사 같은 식구이자 증조 할아버지뻘인 스님을 살아생전에 뵈지도 못하고,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안타까웠는데 돌아가신 후에

나마 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스님께서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다니셨다가에 출가 전의 대학 선배이셨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스님의 살아 있는 글들은 불교계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승려이자 수필가로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불교를 전법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책에 담겨 있는 스님의 수행생활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제가 출가 전에 본 책으로는 ‘무소유’, ‘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님 입적 후 책이 절판되기까지 인기 속에 ‘아름다운 마무리’, ‘산방한담’, ‘인도기행’ 등을 읽었습니다. 번역서로는 ‘불타 석가모니’, ‘법구경’도 보았고요. 스님께서 떠나실 때도 무소유를 실천하시려고 어떤 장례 절차도 치르지 말라 하셨는데 가사를 덮은 스님을 다비식까지 마치는 3일 간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로 출가하여, 자유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중립국을 택하는 심정으로 이 길을 택하셨다고 하신 스님. 당시 고향 목포를 떠나 강원도로 길을 향했던 스님은 서울에 갔으나 강원도로 가는 길이 막혀

효봉스님을 은사스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흐른 입적하신 날 그 때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토굴에서 돌아가시고 싶었지만 스님께서 하룻밤도 머물지 않으셨다는 길상사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때도 눈이 많이 와서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한 자루의 펜으로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시원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승가, 속가의 후학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님이 나오지 않게 된 지금, 스님께서 유지로써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말라. 다음 생까지 말빛을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스님의 뜻은 세세생생에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송광사에서 출가한지 3년 째 되는 초학자입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잘 받들도록 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십시오. 定慧社

도를 실천하는 사람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 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 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진 이 그는 나를 수행자라 부른다.

- 법구경

벌써 한달이

법종法鐘 | 사미



이곳 송광사 강원 사미반에
입방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오늘까지 포살 두 번,
동안거 또한 한 달이 지났다.
많은 것을 몰라 죄충우돌!
조심한다곤 하지만 많은
대중들과 처음 생활하고, 많이
부족한 탓에 윗반 스님(벌써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들께 죄송하다.
수행자로서 머트러운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너그러이 감싸주시고 편히 대해
주심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 등 모든
것이 감사하다.
삼보사찰인 이곳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예 입방해서
대중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다.
처음 이곳에 있을 때 많은 것이
어색해서인지 칠불에서 즐기던
식혜나 떡 생각이 났다. 잠시

향수 아닌 향수에 젖었던 것
같다. 대기기간 보름이 지나고
사미반에 정식 입방이 허락되고
정신없이 지나간 한 달이다. 눈
뜨면 벌써 저녁 공사시간이 되어
있다. 무엇이 어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당연한
것이겠지만) 많이 모른다. 그저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려 한다.
이곳에 오기 전 대중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기에 윗반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다. 많은 스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대기기간에는 지객소임인
진상스님께서 지금은
치문반장인 일몽스님, 그리고
다른 스님들 덕분이다.
참! 난 이곳이 1년 365일 삼시 세
끼 발우공양하는 도량인 줄
몰랐다. 알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 것이다. 처음엔
빨리 먹어야 하기에 양껏(?)
먹기는 고사하고 소화가 되는지
그저 공양을 삼키기 바빴다.
발우공양 삼시 세 끼! 처음엔
많이 벅찼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듯하다.
한 달여 시간이 흐른 지금
어느덧 발우공양에 적응이 된
듯하다. 아직은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서인지 나름

재미도 있다. 발우공양을 하는 동안 나를 계속 살피게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왜 하는지 스스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공양시간이 더 의미가 있어진 듯하다.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 윗반 스님들과 대중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늘 스스로를 살피게 된다. 늘 바로 서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곳 대중생활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하루하루 지나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작은 깨우침(?)이 있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은 듯해 다행이다.

이곳 송광사 강원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제불보살님, 화엄성중님 감사합니다. **定慧社**

고무신

진웅眞雄 | 치문



머리 깎고 고무신을 처음 신어 보았다. 생각보다 무지 편한 신발이다. 발을 넣으면 바로 들어간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금방 때가 타서 하루에 한 번씩 닦아 주어야 깨끗함이 유지한다. 그러다 어느 날 해결방법을 찾았다. 바로 검정 고무신이다. 1년 동안 한 번도 닦지 않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추천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부끄럽다. 사실 흰 고무신이나 검정 고무신이나 더러워지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흰 고무신을 닦지 않고 1년 동안 신었다면 더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강원에 들어와 신을 바꿔 신고 내 모습을 돌아보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때가 끼어 있었는지 알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 잘 닦아
맑아지길 기대해 본다. **定慧社**

한 해 마무리 하기

일몽日夢 | 치문



올해는 내게 정말 많은 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일 큰일은 사미계를 수계한 것이다. 송광사에서 6개월 간의 행자생활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의 예비 승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되기 위한 여러 기본교육이 있지만 송광사 강원을 선택하였다. 출가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일이고 행자생활 동안 때론 힘들고 몸이 다치기도 하였지만 지금의 일몽스님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몽스님이라고 부르는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강원엔 입방해 많이 서툰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송광사 강원의 확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벌써 치문반을 마무리하는 동안거이다. 이렇게

빨리 가듯 4년도 금방일 것 같다. 처음 입방해 여유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 시간이 빠듯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자유시간도 주어져 내 주위도 한번 살피게 되고 도반들을 생각하는 여유도 생겼다. 우리 반 도반스님들은 너무 좋은 도반들이 많다. 가끔씩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잘 이해해 주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화합인 것 같다. 앞으로 강원생활을 하는 동안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힘든 일, 나쁜 일도 항상 같이 따라 다닐 것이다. 그렇다고 힘들어 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나보다는 내 주위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는 보현보살님처럼 열심히 보람차게 강원생활을 할 것이다. **定慧社**

은사스님

혜연惠然 | 사집



스님을 처음 뵈 건 대학에 다닐 때. 증심사 주지로 계셨을 때이다. 속가 모친께서는 지금 송광사 주지스님 때부터 증심사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다. 전남대 재학 중에 불교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광주에서 이름 있는 절이었기에 사찰봉사나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찾아 갔었다. 갈 때마다 당시 주지스님이셨던 은사스님을 뵈고 인사를 드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던 중, 스님께서 들르셨는데 커피 값을 주고 가시기도 했다. 아마 이 때부터 숙세의 인연은 시작되었나 보다. 임기가 다 되시고 종회의원직을 맡으셔서 서울에 자주 가 계시게 되고 나는 그 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될 줄은 몰랐었다.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던 중.

라디오 불교방송에서 대학선배의 인연으로 알게 된 광원암 연제스님께서 특강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광주불교방송국을 일주일마다 찾아가서 금강경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중 광원암 스님께서 인도여행을 가셔서 연제스님이 잠시 들어가 계시면서 나를 불러 일을 시키셨다.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무 자르고, 낙엽 모으고, 밭일하기 등등 일을 하였다. 그런 동안 방에서 상담을 하고 출가의사를 듣고 상담을 하고 한 길을 권유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듣고 나서는 며칠 있다가 지금 은사스님을 말씀하셨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던 나는 그러겠다고 하고 서울에 계시다가 증심사 오게 되신 날 만나 뵈었다. 그 날 내용은 왜 출가하느냐?, 잘 할 수 있겠냐?, 절 생활은 이리이러한 것이다 등을 말씀하셨다.

대화 끝에 OK하시고 “큰 절에 가라.”하시고, 언제 들어 갈 거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겠다하고 내려와서

동안거 해제 일주일 앞두고 송광사로 왔다.

내 속가 생일에 삭발을 하고 행자실에 입방하며 6개월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고 사형스님이신 혜공스님과 함께 봉은사로 인사드리러 갔다. 첫 말씀이 ‘계 받고 나니 기분이 어떠냐?’ 물으시니 그냥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은사스님은 강남의 중심가인 봉은사 총무직을 맡으셨고, 몇 년 뒤 부주지직을 맡게 되셨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 상담하고 강원 사미반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학을 하고 보궁기도를 다녀오라고 해서, 둘째 사형이신 혜철스님께 조언을 받아 강원도 일대를 참배하였다.

그 후로 방학 때면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워낙 바쁘셔서 부산 관음사에 가서 방장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머물러 있기도 했다.

스님께서서는 고향이 경남 마산 분이시기에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약간 무뚝뚝해 보인다. 그러나 내면은 다정다감하시고 배려 깊으신 분이다.

지금은 막내이고 거의 속가 아들 뻔 되는 나를 아껴 주시고 챙겨주시는 자상하신 분이다. 어떤 말에 부모자식의 인연은 몇 겁이요, 형제자매의 연은 몇 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겁생래에 쌓여온 인연으로 지금 스승과 제자가 된 인연에 대해 감사하게 느낀다.

은사스님께서서는 지금 봉은사 주지(재산관리인) 소임을 맡고 계시는 眞자 和자 스님이시다. 定慧社

대웅전 부전의 칭찬 에너지

대일大日 | 사집



2010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대웅전 부전 소임.
처음에는 긴장에 연속으로 잦은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OK!!
가을산철 어느 날 한참
집전미숙으로 긴장에 긴장으로
집전하던 중.
“목탁과 경쇠를 악기(?) 다루듯이
생각하면서 치세요.”
라고 총무 스님께서 해주신 한
마디에 용기(?) 백배
충전완료!!!하고 그날부터
자신감 있게 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어간 큰스님께서,
“대일이, 집전 잘하네.”
칭찬도 받았다.
덕분에 가을산철에는 실수 없이
무난하게 소임을 마쳤다.
But!! 동안거에 종고장이었다가
도반스님의 사정에 의해 갑자기
변경된 동안거 대웅전 부전!!
자신 있게 “Yes!!”라고 했지만.

‘역시 동안거답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쇠를 칠 때마다 손
뺏속까지 올라오는 진동과 추위.
역시 온도와 체력이 많이 부족한
듯 했지만 진X스님이 하셨던 말.
“내가 스님 나이 10대 때는
바위도 씹어 먹었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빨 아프겠다.)
하여튼 웬지 기운 솟는
19세였다.
그러나, 보름 뒤, 2011년이면
20세인데...
아무튼 가을산철에
녹음전문팀에서 녹음할 때도
‘집전 아주 좋았어요.’ 라는 말에
감동이 폭풍처럼 밀려 왔다.
거기다 요즘 목도 쉬고
변성기인데다가 목소리도 완전
영망인데,
“부전스님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요즘 송광사 자주 오고 있어요.”
라는 한 신도님 말씀 듣고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하여튼 주위의 격려에 힘입어
남은 2010년 동안거 기간 동안
실수 없도록 신심 내서 열심히
대웅전 부전소임
살아야겠다. **定慧社**

송광사 율주律主,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知玄 스님



편집자의 속가 이모이셨던 비구니 선해 스님께서는 송광사 스님들께서 여법하게 잘 사시는 분이 많으시다면서, 송광사 율주 스님을 평소에 존경해 왔다고 하셨다. 당시 율원장律院長 지현 스님의 존함을 처음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청정하고 인자하신 기운을 느꼈었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행자 교육원에서 직접 뵈게 되면서, 마음을 울리는 자상하신 법문을 듣고 율주 스님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스님을 정혜탐방 취재를 하면서 친견하기 위해 율원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도 긴장했던 나머지 질문을 드리면서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대형 사고를 터트리기도 말았다.

이하의 대답은 순전히 나의 기억을 더듬어 다듬어 낸 결과라는 것을 미리 밝히며, 스님의 자상하고도 깊으신 법문들을 모두 온전히 담지 못해, 율주 스님과 독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같이 취재를 했던 혜연 스님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편집실

○ 지금 이 정혜사지(定慧社誌)가 그 동안 예산상의 어려움과 존립의의에 대한 문제 제기, 편집위원의 잦은 교체 등의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작년, 편집장 스님과 강주스님과 면담에서 폐간하는 안이 제기 되었고, 학감 스님이 대중스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고 해서 큰방 대중 공사에 안건으로 내걸어 대중의 의견을 물은 결과, 폐간하지는 의견이 주도적이어서 폐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강원 동문 선배 스님들께서, 그 동안 근 20여 년에 걸쳐 총 40회에 가깝게 출간해 온 정혜사지를, 현재 학인들이 편집 여건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의대로 폐간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경책의 의견을 내리셔서, 작년 편집장 스님과 저희들이 기존의 년 2회 발행이 아닌, 1년에 한 번 출간하기로 학감 스님과 의견을 맞추어서 작년부터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호 정혜탐방은 송광사 울주와 부산 포교당과 사회복지 법인 소임을 함께 사시면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 스님을 취재하여 글을 올리기로 하였는데,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혜사지에 좋은 글을 실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네요. (웃음) 너무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강원 체계를 부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중국에서 넘어온 선불교 또한 부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시대가 변화면 그 시대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그 현지 사정에 맞게 변화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강원 스님들의 수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소식지인 정혜사지도 현재 학인들의 여건과 근기에 맞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잘 전파한다면 충분히 그 의의를 다하는 거예요. 다시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좀 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정혜사지 편집을 더욱 더 열심히 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 스님께서 그 동안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셨고, 행자 교육원에서는 유나 소임도 쪽 맡아 보셨는데요. 현재, 출가자 수는 감소하고, 갈수록 출가 연령은 높아지는데다, 밖으로는 종교편향 정책이다, 개신교의 불교 폄훼사건이 만연하는 등 '불교계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불교계의 동향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다. 아니다.' 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출가 수행자로서 할 만한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당시를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부처님께서 브라만교가 지배적이었던 데다가 당시 육사외도 등의 발흥 등 사상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대적·공간적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단을 성립시켜 불교를 발생시키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죠. 35세의 젊은 스님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당시 시대 상황에서의 인도에서 전법활동 하시던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온 인도 전체가 브라만교 및 육사외도들의 교단이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오직 당신의 깨달음 하나로 당시의 그 교단들에 맞서 전법 활동을 펼치셨다는 사실은, 실로 목숨까지 걸고 교화 활동을 펼치셨다는 말씀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교세가 우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1~2백년이 되지만 한국 불교는 가락국 기원설로 본다면 2천년이죠. 고구려 소수림왕의 수용 이후로 보아도 1천 7백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의 학인 스

님들은 이러한 우리의 유서 깊은 불교 전통에 사는 수혜의 정점에 서 있다 말씀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자로서 우리 불교가 어렵다는 원인을 우리 밖의 여건들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교리 자체가 가지는 모순점들이 많기 때문에 차차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고, 앞으로 불교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밝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인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출가자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서 생활을 한다면, 기독교세가 불교세로 넘어오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반대로 법답게 생활을 잘 해 나간다면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기독교 계열의 직장이나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는, 그 기관 종사자 자신이 스스로 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관 내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직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기업이라던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나 병원 내에서 직원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활동의 한 예로 앞서 말한 병원에서 평생 불교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해 온 환자가 입원했다 치면, 그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교를 해서 임종을 며칠 앞두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포교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추세에서 사회 복지 분야에서의 기독교의 잠식화를 막는 동시에 사그라져만 가는 불교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통해 포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을 94년부터 맡아 15여 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환희 불교 복지 대학을 설립하여 복지관에서 각 실무분야 마다 교육생을 육성하여 사회봉사도 시키고, 관음사 신도님들도 뜻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사중의 지원을 통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거쳐 봉사 활동에 동참하였으며, 현재 육백여 명이 임종 직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내 13개 종합 병원에서 약 만여 명이 호스피스 실무 현장을 거쳐 갔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만이 '불교' 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동참하는 대승보살 사상에 입각해 본다면 훌륭한 포교의 한 측면이라고도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불교계도 포교와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님께서는 예로부터 효상좌孝上座로 잘 알려져 계신데, 현재 방장스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여기에 따른 일화나 소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산문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누구나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장 스님 또한 당신이 어릴 적부터 효봉峯 노스님을 계속 시봉해 왔었고, 이어서는 구산 노스님 또한 곁에서 늘 시봉해 오시지를 않으셨습니까. 옛 가야 총림에서는 물론이고 해인 총림에서도 교무소임을 보시면서 줄곧 옆에 계셨고요.

오히려 제가 어른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로 인해 어른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방장 스님께서 84년, 종단의 단일 계단을 발족시키시고

전계 대화상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계단이 확립되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율원에서 공부하고, 송광사에서 재무 소임도 한 3년 정도 살았다가, 해인사 강원에서 학감을 보고 있었는데, 방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중 어른들의 의견이 부산 관음사 주지를 자네가 한 번 맡아봤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심 고민되던 게 ‘그래 출세出世한 중이 산중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절이라는 해인사에 살다가, 도심 속 변두리의 조그만 포교당에 가게 되려니 주위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 스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면, 그 연꽃을 틔워 줄 수 있는 진흙이 한 번 되어 보자.”는 원을 세우고 주지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 후에도 방장스님의 말씀대로 율원 소임도 맡고, 행자 교육원에서 습의사, 교수사도 맡고, 35기 까지 유나 소임도 여러 차례 맡았고, 지금까지 줄곧 대소사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에 역할을 넘겨 줄 때가 된 것 같아 거의 손을 놓은 상황이지요.

처음에는 방장 스님이 역임하시던 행자 교육원 유나를 맡아 달란 말을 듣고 관음사 주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절을 오래 떠나서 사미계 수계 산림이 열리던 송광사에서 근 한 달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유나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제 한 철을 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방장스님께서 늘 염두에 두어 마지않으셨던 단일 계단 수립이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 이제 39기 까지 회향하여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끼는 바이고,

그렇게 매진해 오실 것을 강조하신 어른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 요즘 하루 일과와 근황은 어떠신지요?

(웃음) 출가지들의 생활이 뭐 다 똑같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불하고 기도는 웬만한 일정이 없으면 안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지 직무 보는 시간 외에는 정진하고, 아침 공양 6시에 죽 한 그릇 먹고, 외부 손님들도 만나고, 종회 일 있으면 나가서 보기도 하고, 임제록이라든지 선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영명 연수 선사께서는 하루에 108가지 계획을 세워 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온 법계 중생들에게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선을 닦기 전에 중생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겠다는 원력이 앞서야한다고 봅니다. 인도나 중국 쪽에는 이제 정토 불교 수행을 많이 하는데, 요즘 시간이 나면 가능한 한 아미타경을 읽려고 합니다. 관음사 신도님들에게도 정토 불교로 전환해 가려는 노력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도량이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관음사 신도님들께는 저도 그렇고, 매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21독씩 독경하기를 줄곧 독려해 왔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左補處이셔서 정토 불교에도 부합되시므로 상단은 관세음보살, 영단은 아미타불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생활의 법도라던가 승려로써 지켜야 될 위의, 어른 스님들 시봉하는 법 등등이 모두 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나이가 되지 않아 사미를 두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다 어느 정도 되고 배움도 어느 정도는 갖추셨기 때문에 크게 나이로서의 사미에 의의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대로라면 강원에서 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가르쳤으면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계율이 제정되었던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와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 상황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계율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다면, 오후 불식 등이 실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외 인터넷 사용, 컴퓨터 여가 환경 등과 관련해서 계율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처님 당시 계율이 시대

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 선불교에서도 선원에서 따로 청규를 제정하였습니다. 보조스님이 만드신 '계초심학인문'도 거의 대부분 송대宋代에 제정된 선원청규문의 내용을 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에서는 한 예로서 탁났한 스님이 만드신 '플럼 빌리지(Plum villiage, 자두마을) 계율'을 들 수 있습니다. 탁났한 스님께서 당신의 공동체의 자두 마을 실정에 맞게 제정하셨는데, 현 승가의 계율처

럼 비구 248계, 비구니 350계의 계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각 계목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목들이 있어요. “차는 개인 소유로 하지 말고 공동 소유로 해라. 그리고 공동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는 불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라.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인淨人을 대동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이 ‘플럼 빌리지 계율’을 출판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승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계율 적용에 있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유연성도 필요하겠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부처님 당시 당신이 제정하신 계율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엄청났거든요. 부처님 당시는 물론이고 당시 승단 내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율 정신을 지켜나가려 했는지. 그 노력의 의미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율장을 직접 보시면 이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미율의에 보면 ‘출가자는 5하까지는 율을 배우고, 그 이후에 경을 배우거나 참선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강원에서 경을 배우고 난 뒤에야 비구계를 받고 율원에 들어가서 율을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이 뒤바뀐 건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원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다 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미율의 위의문威儀文에 나오는 내용을 강원 생활에서 모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생활의 법도라던가 승려로써 지켜야 될 위의, 어른 스님들 시봉하

는 법 등등이 모두 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나이가 되지 않아 사미를 두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다 어느 정도 되고 배움도 어느 정도는 갖춰졌기 때문에 크게 나이로서의 사미에 의의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대로라면 강원에서 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가르쳤으면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웃음)

○ 그럼 강원에서 조사 어록을 먼저 배우고, 경을 나중에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바뀐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을 먼저 배워 어느 정도 교리에 접근한 다음에 조사 어록을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사 어록을 먼저 배우고 경을 배우는 것은 요즘 학인 스님들이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계를 받기 전에 승려로서의 기본 지식과 자세에 대한 경책, 선 공부에 대한 기본 원리, 선의 요지와 참선하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 후배 학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강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치문경훈에 장로자각 색선사 좌선의長蘆慈覺蹟禪師 坐禪儀에 보면 ‘學

般若菩薩은 先當起大悲心하여 發弘誓願하고 精修三昧하나니 誓度衆生하고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 마땅히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어 서원을 널리 발원하고 삼매를 닦으니 중생을 제도하고자…….’로 시작되는 것처럼 참선을 하기 이전에 중생을 위한 대비심(大悲心)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僧重則法重 僧輕則法輕’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님의 행동이 여법해야 불법 또한 존중받고, 스님의 행동이 여법하지 않으면 불법도 또한 비난 받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행동을 잘 하여야만 불법이 비난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제자가 되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학인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지혜로써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그리고 구경에는 부처님께서 60아라한에게 전도 선언을 하셨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곧추세워 똑바로 일어난 다음에는 부처님의 법향法香이 이웃에게 널리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감을 무엇보다 굳건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스님의 원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것이 모두 다 질문의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생각하자면 젊은 혈기로 벌려 놓은 일들을 환갑도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늘 귀감으로 삼고 있는 경구가 있는데요. 바로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님께서 세우신 10종 공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자교육원에서도 우리 관음사 인경공덕회에서 『보현행원품』을 책으로 펴내서 모두 나눠 드렸잖아요. 굳이 다시 열거하자면,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 항상 중생을 수순隨順하는 것이요. 열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요. 이 열 가지입니다. 이 열 가지 원을 늘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定慧社

● ● ● 지현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강원, 울원 졸업, 해인사 강원 학감 역임, 송광사 재무국장 역임, 현)송광사 울원 울주, 부산 관음사 주지, 사단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金剛山 九龍淵 石壁 彌勒佛 三字의 由來

청현淸賢 | 광주 무각사 회주



실제 금강산 구룡연 석벽의 글씨

彌勒佛(미륵불) 석자를 새기게 된 유래는 金剛山 外金剛 神溪寺 普雲庵에 주석해 계시던 石頭寶澤(석두보택)스님의 깊은 原力으로 비롯된다. 스님께서서는 道率發源을 하시게 된 淵源이 彌勒上生經(미륵상생경)에 의하면 미륵불이 성불하여 龍華世界의 教主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스님께서도 그 會上에 참석하시어 成佛하시겠다는 지극한 發願으로 구룡연 석벽에 미륵불 석자를 새기게 된 것이라 한다. 願을 실현하고자 書藝家를 물색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당대의 名筆家 金圭鎭(김규진) 선생을 만나서 한 글자에 百圓 씩 三字를 三百圓에 합의 약속을 하고, 스님은 금강산으로 들어가셨다. 얼마가 지난 후에 글씨가 완성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돈 삼백 원을 가지고 서

울로 나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글씨를 보시면서 감탄을 하셨다고 한다.

일반 市中에는 그렇게 큰 글자를 쓸 만한 붓이 없어서 日本 北海島産 野生馬 말꼬리를 구해서 빗자루 크기만큼의 큰 붓을 만들어서 써 놓고는... 『海岡 金圭鎭』이라는 五字와 함께 창문 크기만한 落款(낙관) 두 개를 더 그려주면서 새겨 달라는 請을 하자, 스님께서서는 나는 미륵불 석자 외에는 청한 일도 없거니와 낙관까지 새길 비용이 없다고 거절하자, 해강은 그 자리서 내가 석두스님에게 크게 속았다고 하면서, 나는 돈보다 명산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所願이니 삼백 원을 안 받을 터이니 이름과 낙관을 새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刻(각)은 日本人이 했는데 돌이 너무 단단 해서 英國産 강철로 정을 만들어 새기게 되었다고 하며, 1918년에 시작하여 1919-己未年에 회향하였다고 한다.(불기 2463년 = 1919년이다)

그해 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近洞 농민들이 떼로 몰려와서 名山에 흠집을 내었기에 山神이 노해서 비가

안온다고 하면서 工事를 중단하라고 농성을 하자, 스님께서 조용히 타이르시기를 며칠 안으로 일이 곧 마무리 되고나면 그때 비가 내릴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달래서 내려 보내 놓고는 일이 끝나고 나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찌나하고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마침 스님의 간절한 願力의 感應(감응)인가, 불보살님의 加被(가피)인가, 天地神明의 도움인가, 回向日을 하루 앞두고 큰 비가 내려서 돌가루와 부스러기들을 모조리 쓸어 말끔히 씻어가고 당일 날은 비가 멈추고 날씨가 화창하게 개여 동리사람들이 信心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떡과 국수 등 供養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와서 모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한다. 불사를 그렇게 마치고나서, 三十圓의 돈이 남아서 施主를 하신 乾鳳寺 會主스님에게 돌려 드리려하자 내가 한 번 시주한 돈을 왜 도로 받겠느냐며 거절하시어 그 돈을 全國禪院에 나누어 供養費로 보내셨다고 한다.

海岡 선생이 미륵불 석자를 大字로 쓸 때, 생각으로 한 번, 종이에다 한 번, 그리고 세 번째는 넓고 길게 이어서 풀을 먹인 광목 위에 썼다고 한다.

石鼎스님께서 열두 살 때에 암벽을 타고 어렵게 올라가 글자 안에 누워보니 양어깨가 꼭 들어갔었다고 증언하신다.

한국에서 그렇게 큰 글자는 처음 쓴 것인데, 그 뒷날 같은 붓으로 外金剛 만폭동에 法起菩薩(법기보살) 이라고 네 글자를 楷書體(해서체)로 써서 새긴 것은 長安寺와 表訓寺 스님들의 주선에 의한 것이라 한다.

그때 쓴 그 붓은 지금 成均館大學校 博物館에 保存되어 있다고 하며, 미륵불 석자 길이가 六十四尺, 폭은 一.三尺 隸書體(예서체)이다. 佛字의 내려 그은 획을 쓰기 위해 먹을 세번이나 문혀서 썼다고 한다.

晦明스님은 乾鳳寺 大衆이 推戴(추대) 하여 萬日會 會主로 모신 분인데 원래 도솔발원을 하셨으며 미륵불 석각에 화주도 하시어 거금 四百圓을 시주하시게 되었다. 石壁에는 李晦明, 秋正明, 도솔화, 淑仁華, 化主 林石頭, 金曙明, 監督 金担月, 成一燮, 張權春 그리고 石工 鈴木銀次郎을 施主名單으로 새겨 넣었는데 김서명은 당시 神溪寺 住持였고, 김단월은 神溪寺, 揄帖寺 住持도 하신 분이며, 당시에는 큰 會上 어른스님으로 祖室, 化主, 住持 세 분이 계셨는데 조

실이 大善知識이 못되면 化主스님이 대선지식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주지는 사무행정만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당시에 쌀 한가마니 가격은 五十錢)

미륵불 석각을 발원하신 석두스님과 시주하신 회명스님 그리고 큰 글씨를 쓴 해강 김규진이 세분을 다시 記述해 보면:



해봉 석정 海峰石鼎스님

石頭스님(1882~1954)은 함경남도 명천군 하가면 화대동 태생으로 속명은 “尙夏”이다 十六歲에 安邊 釋王寺로 出家하여, 당시에 爐殿(노전)으로 계시던 白荷清旻(백하청민) 스님을 만나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밤 꿈에 용이 昇天(승천)하는 꿈을 꾸고 나서 네가 왔으니 전해오는 말에 용꿈을 꾸고 弟子를 두면 큰 선지식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시면서 즉석에서 삭발케 하고 龍吟寶澤(용음보택)이라고 法名 堂號까지 지어주셨다. 뒷날 다시 스님께 말씀드려 堂號를 石頭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05년 二十五歲에 海印寺를 내려오셔서 堆雪堂(퇴설당)에서 정진하시다가 二十六歲때에 크게 깨달으시고, 二十七歲 冬安居 解制法席-해제법석에서 당시 海印寺 주지 李廻光(이회광) 스님의 法門을 一問으로 閉鎖(폐쇄)하고 금강산 普雲庵(보운암)으로 들어갔다. 보운암은 曉峰(효봉), 華峰(화봉)스님께서 入山 出家한 곳이며 白荷스님이 涅槃(열반)하신 곳이다.

1940년 ~ 1952년까지 松廣寺 遮眼堂(차안당)에 조용히 머무시다가 송광사를 떠나 淳昌(순창) 淳平庵(순평암)과, 南原(남원) 白牛庵에서도 잠시 머무르셨는데 그때까지는 글씨를 잘 쓰셨으나 壬辰年(임진년)부터는 毛筆을 들지 않으셨다 한다. 統營 彌勒山 彌來寺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1954년 73세에 열반에 드셨다. “彌勒尊佛 金剛山 無化子 書”라는 글씨와 “佛”자가 송광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無化子是 自號이다.

一萬장에 가까운 佛字와 彌勒尊佛을 쓰셨는데 佛자는 漢文으로만 쓰시고 彌勒尊佛은 한글로도 쓰셔서 因緣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도술발원을 고취하셨다고 한다. 弟子에는 初代 宗正을 지내셨던 曉峰스님과 香峰, 華峰, 溪峰, 海峰스님이 계신다.

거금을 시주하신 晦明日昇(회명일승) 스님(1866~1952)은 釋王寺 涵月門人이며 石頭스님의 師叔(사숙) 별 되는 분으로 건봉사에 상주하면서 만일염불회 회주로 계셨다. 회명스님은 財源이 풍부한 부자스님으로 전국 여러 寺院佛事に 아낌없이 보시한 信望이 높았던 분으로 通度寺 泗冥庵(사명암)에 계시던 丹青匠 慧覺스님의 恩師스님이시다. 萬日念佛會는 新羅 景德王 十七年에 發徵和尚(발징화상)이 發願을 하여 시작된 이래 乾鳳寺에



斷續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1935년 晦明스님이 새롭게 萬日念佛會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海岡 金圭鎮(김규진, 1868~1933)은 남평 김씨로 敬順王(경순왕)의 후손이며 평남 중화 농가에서 태어나 외숙부에게서 書畫의 기초를 닦고, 中國에 들어가 八年間의 서화를 鍊磨하고 귀국하여 世子 英親王(영친왕)에게 書藝를 가르쳤으며, 다시 日本으로 건너가 사진술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사진관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畫廊(화랑)을 열면서 서예를 통해 金錢 거래도 처음으로 시도한 분으로 알려졌으며, 書畫分野의 개척자이고 활동적인 先驅者(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다.

사찰과의 인연도 깊어서 전국 三十一 本山을 찾아다니며 글씨와, 蘭, 竹 그림을 남긴 분으로 알려졌으며, 大筆에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三十一 本山の 寺額(사액)만은 代金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중앙에 海岡 글씨, 그리고 左右에는 蘭, 竹은 弟子/ 竹農 安淳煥(안순환)의 작품이며 安氏가 刻해서 塗裝(도장)까지 하였다고 한다.



송광사 우화각의 편액

우리나라에서 돌부처님은 무조건 미륵이라 생각하며 부르게 되었는데, 金剛山 神溪寺, 金堤 金山寺, 統營 龍華寺를 龍華 三會上이라고 부르는 설도 있으며, 新羅, 百濟, 高句麗의 彌勒半跏 思惟相(미륵반가사유상)이 많이 있는 것도 도솔발원 때문이고, 元曉스님은 도솔발원을 하고, 義湘스님은 극락발원을 하였다고 한다.

道安과 元曉스님은 上生願을 적극적으로 勸讚嘆(권찬탄) 하신 분이고 도솔발원의 鼻祖(비조)는 天親, 無着 두형제로 보아야 한다. 論山 恩律 彌勒은 실제로 관세음보살상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세에 미륵발원을 하신 분이 鏡虛, 霽山, 田岡, 九河, 石頭, 九山스님 등이 계셨고, 龍華寺, 彌勒寺, 도솔암, 內院庵의 명칭들이 많이 있으며, 제일 오래가는 것이 돌이라 생각하여 龍華會上까지 길이 오래 가라는 의미로 彌勒佛을 돌로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석두스님의 直系 弟子인 海峰石鼎스님의 口述(구술)을 정리 기록한 것이다. 定慧社

庚寅年 七夕日(2010-8-16) 門徒 清賢 再整理

青梅祖師 十無益頌

1. 心不返照 看經無益

마음을 돌이켜 보지 못하면 성현의 경전을 읽어보아도 이익이 없다.

2. 不信正法 苦行無益

바른 법을 믿지 않고는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3. 經因重果 求道無益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는 크게 생각하면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4. 心信非實 巧言無益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묘한 말을 잘 해도 이익이 없다.

5. 不達性空 坐禪無益

성품이 공한 줄을 체달하지 못하고는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6. 不折我慢 學法無益

아만심을 꺾지 않고는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7. 欠人師德 聚衆無益

스승의 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대중을 모아 놓고 살아도 이익이 없다.

8. 滿腹橋慢 有識無益

배 속에 교만만 꽉 찬 사람은 유식하여도 이익이 없다.

9. 一生乖角 處衆無益

한평생 모나게 사는 사람은 대중 가운데 살아도 이익이 없다.

10. 內無實德 外儀無益

안으로 참다운 덕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점잖은 거동을 해도 이익이 없다.

평범한 강원생활의 일과 혜정慧淨 | 치문



어김없이 새벽 3시가 되면 도량석 목탁소리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기상 후 새벽 소리간경 준비를 끝낸 후 잼싸게 생리 문제를 해결한 뒤 예불에 들어간다. 아직 잠이 덜 깨서인지 비몽사몽으로 새벽 예불을 마치고 소리간경을 한다. 윗반스님들께서 스님생활을 잘 하려면 소리간경 때 열심히 목소리를 다듬어야 염불을 잘할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목청껏 소리 높여 간경을 한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소리간경이 끝난 후 설 시간도 없이 아침 발우공양 준비를 한다. 윗반스님 좌차와 불참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장의 연속이다. 어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런 강원생활이 망상을 피우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SYSTEM인 것 같다.

아침 발우공양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하고 상강례 준비를 한다. 흰색 고무신을 닦고 큰방에 들어가 어간 좌복과 마이크, 목탁을 제 위치에 놓고 바닥에 있는 고춧가루 등 먼지를 걸레로 문지른다. 자기 마음속에 낀 먼지를 닦듯이...

아침 강의가 시작된다. 강사스님께 삼배를 하고 강의를 듣지만 아직 한문에 익숙하지 않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잠이 쏟아진다. 그래도 습을 들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 사시예불 전에 잠깐의 운력이 있는 날이면 대웅전 앞마당에 잡초와 등산객이 버리고 간 휴지를 줍는다. 도량정비 운력을 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다. 내 마음에 있는 먼지도 같이 버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사시예불을 신심을 다해 석가모니 정근을 한다. 초심 때 발원한 이 마음 변치 않게 부처님 전에 빈다. 사시예불과 공양을 마치면 치문반의 자유시간이다. 이 시간이 하루일과 중에 밀린 빨래, 개인정비를 할 수 있다.

1시 50분에 오후 간경 목탁이 울리면 간경이 시작된다. 당일 배운 내용과 내일 배울 내용을 공부한다.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간경시간에 한문공부와 소리간경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소임처로 가서 소임을 본다. 나는 도성당이다.

은사스님의 방청소와 화단의 풀을 뽑는 일이다.

저녁공양과 저녁예불, 저녁체조, 공사를 마치면 취침한다. 식발한 머리를 만지며 발심하여 출가한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이런 평범한 절집 생활이 나에게 너무 좋다. 평소에 갈망한 이런 생활이... **定慧社**

어느 여름날의 송광사 행원行源 | 치문

별빛사이로 풀벌레 우는 소리와 풀내음이 짙은 향기로 새벽 법고를 시작으로 산사의 하루가 시작 되는 가운데 스님네들과 작은 소망을 담은 우바새, 우바이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지심귀명례...

저마다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가의 자장가처럼 대웅전 부전스님의 목탁소리가 청신사, 청신녀들의 마음을 자장가처럼 달래 줍니다. 어느새 기도를 올리는 법당에서 예불이 끝나고 스님네들의 간경소리와 후원에서 공양 준비가 시작됩니다.

아침이 지나고 나직이 해가 중천에 떠오를 쯤 순례자와 기도자들이 보입니다.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시방의 부처님께 향을 사르며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방의 모든 불보살께서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한 잔의 찻잔과 대나무사이 바람소리와 함께 산사의 모습은 어느새 서산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인적의 모습은 사라지고 저녁 예불을 끝으로 다시 산사의 풍경은 저녁노을을 저편으로 조용히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느 여름날의 송광사의 푸른 밤은 은하수로 펼쳐가며...

연인들의 속삭임과 같은 개울물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無心の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하반야바라밀..... 定慧社

출퇴근 행자 자운慈昫 | 치문

나는 출퇴근 행자 출신이다.

출가해서 지금까지 출퇴근하며 행자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내가 출퇴근 행자 1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상하면 절로 가서 행자로 살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만 자고 다시 절로 출근하는 희한한 생활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절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이들을 돕고 있는 것인가?, 매일 같이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씻어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데 겉껍데기만 도와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을 제대로 도

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불교는 마음공부」라는데 불교 공부를 해봐야겠다.’

마침 집근처에 마음공부를 가르쳐 주는 포교당이 있어 찾아간 것이 지금의 은사스님과 인연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시내에 있는 포교당이었지만 다른 포교당과 달리 참선으로 포교를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은사스님과 인연이 되려고 그랬었나 보다. 그 당시 나는 출가까지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마음공부에 관심이 있는 천주교인 정도였다. 여전히 성당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그런 내가 6개월 뒤 전격적으로 출가 결심을 하게 될 줄을 나도 미처 몰랐다. 어쨌든 나는 6개월 뒤 지금의 은사스님과 면담 후 출가 결심을 하게 됐으며,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어떻게 어머니와 집에 알릴 것인가? 어머니 역시 천주교인이었는데 한번 시작하면 뿌리를 캐는 나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신 어머니는 6개월간 나를 지켜보시더니

‘너 혹시 중 되려고 그러냐? 나 죽는 꼴 보려면 그렇게 해라’ 하시는 것이었다.

나 역시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선불리 출가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은사스님과 상의한 끝에 집에는 비밀로 하고 새벽에 절로 출근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행자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은사스님의 사제되시는 분이 절에 오셨다가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는 대뜸 ‘그럼 출퇴근 행자네’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출퇴근 행자가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은사스님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물론 출가하는 마당에 가족과의 관계를 단칼에 끊고 어디 멀리 큰절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더라면 나에게서는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꼬박 1년, 드디어 집안의 허락을 얻어낸 나는 삭발염의하고 정식으로 행자생활을 할 수 있었다.

p.s 지금 우리 절에는 제2호 출퇴근 행자님이 있다. ^^ 定慧社

진언에 대하여 덕인德印 | 사집

진언을 우리말로 하면 ‘진실한 말’ 이다 ‘말’이란 ‘마+알’ 이고 ‘마음’을 ‘알리는 것’이 ‘말’이다. ‘진실한 말’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

‘진실한 마음’은 바로 우리의 ‘자성’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자성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것은 ‘뜻’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진언’의 ‘힘’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사는 말들은 대부분 ‘탐, 진, 치’ 삼독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외부의 마음과 내면의 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진실한 말’에서 나오는 능력이 없다.

‘진언’은 예로부터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진언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즈음 들어서는 점점 진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번역에 대한 오류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빠꾸기 소리’를 예를 들어 진언의 번역에 대한 오류를 한 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기 위해 옆집 친구를 불러내는 방식으로 ‘빠꼭빠꼭’ 하는 소리를 내면 ‘밖으로 놀러 나오라는 신호’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자. 이 때 ‘빠꼭빠꼭’이라는 말 속에는 ‘빠꾸기 울음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야! 나 왔어,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라는 아이들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빠꼭빠꼭’이라는 말 속에 심어놓은 진짜의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진언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 그것은 범어의 원뜻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빠꼭빠꼭’은 ‘빠꾸기의 울음소리’라는 식의 번역을 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예불 때마다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의 시작은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인데 대부분의 해설서들은 ‘수리’는 범어로서 우리말로 ‘무슨 뜻’ 이런 식으로, ‘마하’는 ‘크다’ 등으로 번역을 한다. 바로 이러한 해석법이 위에서 설명한 ‘빠꼭빠꼭’은 ‘빠꾸기 울음소리’와 같은 방식의 ‘해석의 오류’로서 일반적으로 진언의 해석에 있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라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진언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서 전해 내려 온 것 같다. 그러면 ‘빠꼭빠꼭’이라는 진언을 본래의 뜻 그대로 ‘야! 나 왔어,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라는 의미로 바르게 해석한 경우는 없을까?



나는 어느 천수경 번역서에서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지 않는 말(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면 구업이 되도다.’로 해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위의 ‘빠꾸기소리’의 예에서 ‘야! 나 왔어,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 즉 ‘부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단순한 언어적 해석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면 ‘빠꼭빠꼭’이라는 말과 ‘야! 나 왔어,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라는 말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말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마음으로 의미를 담은 사람의 ‘뜻’을 기준으로 본다면 언어적 해석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위의 ‘정구업진언’

의 예가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정구업진언’의 예를 ‘뜻’에 의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정구업진언’이란 말의 뜻은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는 뜻이다. 즉,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그 뜻을 관하다 보면’ 바로 ‘구업을 깨끗이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진언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실한 말’이다.

만약 이 진언을 반복적으로 외우며 그 뜻을 관했는데도 위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 진언이 ‘진실한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면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지 않은 말을 하면 구업이 되도다.’를 뜻으로 관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 진실한 말하고 살아야 되고 하지 않은 말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러나오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진언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믿고 외우는 사람간의 자성에 의한 ‘공감’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작용은 생활 속에서 ‘진언’을 외우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지 않은 말을 자제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구업’을 깨끗이 하는 일이 되고 말 그대로 ‘정구업’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진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어떤 뜻을 심으셨다면 그 뜻은 분명히 이 진언의 제목처럼 진언을 외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구업’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뜻을 심으셨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범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언어적 의미로 ‘빠꾸기 울음소리’이거나 ‘뜸부기 울음소리’라는 번역이 되건 간에 뜻으로 풀이한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지 않은 말을 하면 구업이 되도다.’와 같은 식의 풀이가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진언이나 경전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우리말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불교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定慧社

절반에 대해 진상眞常 | 사집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일 것이다. 또한 그 중간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게 시간의 화살은 시작점으로부터 끝점으로 쏘아지게 마련인데, 그 중간의 지점인 절반을 생각해 본다.

물리적인 시간을 관측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매우 정확하고 공정하게 흘러간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세습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정하고 또 일정 시간동안 빛이 달려가는 거리를 1미터로 정하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고장 난’이란 말처럼 심리적 시간은 부정확하고 영성해 보이긴 한다.)

시작점에서 중간까지는 오르막길이라 힘겹게 앞만 보고 올라간다. 그저 꼭대기만 바라보고 가다보니 여

기저기 둘러볼 여유도 없다. 그러다 그 절반이자 산의 정상인 곳에 다다르고 보면 산 너머의 남은 길도 보이고 숨 가쁘게 지나온 길도 돌아보고 말이다. 숲속을 지나느라 보지 못한 숲의 경치를 만끽하는 여유를 갖는 것도 잠시... 아뿔싸, 브레이크가 고장이지 않은가? ‘어~ 어~ 어~’ 하다보면 벌써 끝점에 도착하고 만다.

어저께가 하안거 반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다. 아직 ‘어~’ 한마디 비명밖에 지르지 않았는데 말이다.

절반은 참 묘하다.

유도시합을 보면 절반이라는 것이 있다. 한판의 절반이라는 말 인듯한데 절반을 두 번 받으면 한판승이 되니 맞는 것 같긴 하다. 한판승은 금방 끝나니 재미가 없지만 절반은 지고 있는 선수는 시간 안에 절반 이상의 포인트를 따야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는 자의 여유에는 남은 경기시간이 길게만 느껴질 것이고 지고 있는 자의 조급함에서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게만 느껴질 테니 말이다. 하나의 경기 중에 두 개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나타내며 간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채워지고 있는 상태’로 보일 것이고 여유가 없다면 같은 물도 ‘비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브레이크가 정상인 경우와 고장 난 경우와 같지 않을까?

길을 떠날 때 자동차도 정비를 하듯이 일을 시작할 땐 마음을 잘 정비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하안거 시간은 브레이크 잘 밟아가게 앞도 뒤도 돌아보고 주변경치도 감상하며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定慧社



낙엽 속에 슬픈사연 우암愚巖 | 치문



봄기운을 받아 살고자 어렵게, 어렵게 밀고 나와 한 나무에 자리를 잡고 새싹으로 태어나 한 나무의 구성원이 되어 그 나무의 옷가지가 되어 주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오로지 한 나무를 의지하며 살아와 보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봄이 가고 더운 여름이 오면 모든 이들의 실 나무그늘을 만들어 주고 태풍 속에서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불평 없이 막아주기도 하지만 모든 이들은 모른다. 그 잎이 어디서 와서 그들을 지켜주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이들은 모른다.

한 나무에 태어난 이후에 계절이 바뀌어 봄이 가고 더운 여름도 가고 잎들은 온 산에 아름다움으로 물들여 놓는다. 울긋불긋한 단풍이며 노랗게 변해져가는 잎들이며 한 폭의 그림 그 자체이다. 그 아름다움은 자기의 삶이 고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당당하게 지탱해 나아가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잠시 뒤로 하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다음에 태어날 새싹들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자리를 내어 주고 나면 겨울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낙엽이 되고 만다.

그동안의 노력은 없고 오로지 귀찮은 존재가 되어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 마감한다. 定慧社

수행 혜정慧淨 | 치문

매일 아침 목탁소리에 맞춰 기상하여 큰방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신속히 예불에 참석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침 소리간경, 잠이 덜 깨어서인지 계속 졸음이 몰려온다. 간경이 끝난 후 아침 발우공양 준비한 후 공양을 마치면 상강례와 수업을 듣는다.

한문 실력이 없어서 수업시간이 힘들지만 그래도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노트에 적는다. 수업이 끝나고 사시예불과 공양, 각자의 소임을 본다. 그리고 오후 운력을 하면서 도반들 간에 정이 쌓이고 서로의 생각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남을 인정하고, 잘 못 보고, 잘 못 생각하는 모난 성격이 조금씩 둥근 모양으로 변화된다.

오후 운력과 간경이 끝나면 저녁공양과 예불 준비를 한다. 그리고 저녁 체조시간, 하루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 각자 사집반 스님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따라한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사 준비를

하면 오늘 하루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했는가? 반성하며 잠을 잔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며, 수행이라는 것도 별 다른 것이 없이 자신을 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定慧社**

불일계곡의 희망 겨울 행원行願 | 치문

근래 또 하나의 명상문화,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다.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을 맞이한 승보종찰 송광사, 연중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한국불교의 맥을 잇고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

일주문을 사이로 수정같이 얼어붙은 얼음사이로 버들치가 노니는 모습은 불일계곡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하얗게 눈 내린 날이면 눈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불일계곡을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을 기약하면서 우리의 자화상은 봄을 준비합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담고 당신 곁으로 갑니다.

행복의 미소를 머금고 돌아갑니다.

지심귀명례...

이것만으로도 소원이 성취됩니다.

소원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송광사로 갑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定慧社**



너는 이 길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자운慈响 | 치문

얼마 전 방학 때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가톨릭 신학교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사제 서품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신학교 6년 과정을 거쳐 사제로 서품되는 과정이 스님들이 출가해서 사미계를 받고 강원(강원)에 들어와 4년 과정을 거쳐서 비구계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스님들이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과 그들의 출가(?)가 다르지 않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 비록 종교와 수행의 목적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출가의 각오와



열정은 다르지 않았다. 내용의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신학생들의 신학교 생활모습과 인터뷰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 한 인터뷰 내용이 지금도 내 뇌리 속에 맴돌고 있다.

“나는 이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딱 멈춰 버렸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 본다.

‘너는 지금 이 길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定慧社

Back to the **행자(?)** 시안是眼 | 치문

하안거가 끝날 무렵, 새롭게 출가하려는 행자님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하안거 방학을 끝내고 돌아오면 ‘많이 들어와 있겠지.’ 라는 기대로 방학을 보내고 송광사로 돌아 왔더니 행자님은 2명뿐!!! 순간 후원지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역시나 송광사 행자출신 치문·사집반 스님들이 후원에서, 혹은 공양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출가하려고 불자님들이 올 때면 막연한 기대로 끝까지 버텨 주기를 바랐지만, 며칠 안 있어서 하산하기를 몇 차례 반복되고, 새로운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니 어느 덧 기대는 체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계를 받고나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공양준비, 행사준비, 여러 후원 일 등등 행자들의 일을 다시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리 복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여러 스님들이 격려하기 위해 복 짓는 일이니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만 왜 그리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전생에 얼마나 복을 짓지 않았으면 행자 때 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금 하는지 모르겠다.

동안거 들어 와서도 마찬가지로 행자님들의 인원구성만 조금의 변화가 있을 뿐, 역시나 2명!!! 하루하루 후원지원 기간이 늘어 갈수록 그에 비례해 피로도 쌓이는 것 같다. 예전 행자시절에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 힘들기는 지금이 더 한 것 같다. 내 마음가짐의 차이일까? 출가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이 계를 받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 멀리 가 있어서 그럴까?

되돌아보면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 강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지내면서 어느 덧 편안함을 찾는 동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처음 송광사 일주문을 들어서던 마음으로, 식발하고 행자복으로 갈아입었던 그 마음으로! 처음으로!!!! 定慧社



소임

명적明寂 | 치문

내 소임은 두 가지이다. 처음부터 두 가지는 아니었지만 하안거 미복귀 스님의 소임을 물려받았다.

이른바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 소임은 4년 동안 변함없이 내 소임이고 한 달에 두 번씩 산문 밖으로 나간다. 현재 9가정에 어리게는 7살부터 고3까지 있다.

이들은 상처받았다. 아마도 이들의 인생 중 가장 심하고 가슴속 깊이 파여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깊은 상처를 새살을 돕게 하여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흉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굵고 굵아서 치유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는 이들의 몫일 것이다.

나는 그들 옆에서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이로서 서로 같이 새살이 잘 돋아서 작은 흉터로 만들어 나가는 조력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定慧社

Western Buddhism

경본京本 | 치문

In the past one-and a-half years which I've spent in Korea at 송광사, many people I meet for the first time are very curious: why did you choose to become a monk? How did you meet Buddhism in America? or why did you choose to renounce in Korea, when there is Buddhism in Tibet, China, Japan, Thailand, etc?

지난 1년 반 동안 송광사에서 지내왔고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워 했다. 왜 스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불교를 접했어요?, 티벳, 일본, 태국 등등에서도 불교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 출가했어요?.

In the 2,600 year history of Buddhism this tradition has moved from India to China and Tibet, south into Burma, Thailand and Sri Lanka, and in the last 100 years, across the oceans to Europe and America. It has been remarked by many scholars that Christianity has been declining in the Wes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from that time, Western philosophers, thinkers and poets have looked towards Buddhism as a religion best suited to the needs of modern humans and the scientific world-view.

2,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 티벳으로, 남쪽으로는 버마, 태국, 스리랑카 등으로 전해졌고, 지난 백년간은 대양을 건너 유럽과 미국에 전해졌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많은 학자들이 불교에 주목하였다. 그때부터 서구의 철학자, 사상가, 시인 등은 현대 사람들과 과학적 세계관의 부응에 적합한 종교로 불교를 바라보게 되었다.

Western scholars have translated and studied the Buddha's teachings for the past 150 years or



so, but it is only since the 1960's that Buddhist monks, temples and teachings have been established and made known to the public.

서구의 학자들은 지난 150여 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고 연구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스님과 절, 교리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확인 되어졌다.

In my country, America, many Buddhist temples and meditation centers have been founded. From the 1960's onward, great teachers and meditation masters such as seung sahn sunim(승산스님), 청화스님, 구산스님 and others have travelled to the US, taught the Dharma to westerners, and their established traditions and organizations continue to this day. Apart from Korean Buddhism, Chinese ch'an and pure land, Japanese Zen, Tibetan and Thai, Burmese and SriLankan Buddhism all have a presence in American Buddhism these days. In my home town of St. Louis, in addition to my home temple, 대한불교조계종 Buddhanara Temple(불국사) we also have a Japanese Zen center, a 불광산사 temple, a Vietnamese Buddhist temple and a Tibetan Temple.

나의 나라,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위대한 스승과 선사들 특히 승산스님, 청화스님, 구산스님 등의 분들이 미국을 순례하시면서 불법을 서구인들에게 가르쳤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과 조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만 떨어져 본다면 중국선, 일본선, 티벳, 태국, 버마, 스리랑카의 불교들이 미국 불교계에 먼저 나타났다. 나의 고향인 세인트루이스에는 내가 다니던 조계종 불국사에다가 일본선 센터, 대만 불광산사, 베트남 절, 티벳 절도 있었다.

For almost all of these Buddhist communities, they are made up of two main groups: those who were born into Buddhist families or of the temple's origin country (Korean-Americans who attend Korean temple), and those like me, coming from a non-buddhist cultural background. As America is a country of immigrants, (and many from Asian country) those people who come to the US still wish to continue their Buddhist practice and traditions, and so many ethnic temples have been established. Those like myself grew up without knowing about Buddhism, but having been inspired by the Dharma or with an interest in meditation practice, sought out Buddhism as a new religion.

이러한 불교공동체들 거의 대부분은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졌다. 하나는 불교신자의 가족 또는 불교적인 국가에서 태어났거나(한국 절에 다니는 한국계 미국인),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이 비불교적 전통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전히 불교 수행과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계의 불교사원이 세워졌다. 나와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온 이들은 불법에 영감을 받고 참선수행에 흥미를 느끼며 불교를 새로운 종교로 탐구하려 한다.

I learned Buddhism first at my university, and believing that it showed a way out of suffering. I started to study and practice meditation: as I did so my faith grew and I wished to renounce. Though I first started to study at a Zen temple of 일본조동종, I found myself drawn more to Korean Zen and Buddhist tradition, though I can't really explain why. Hearing Korean 염불, seeing photographs of Korean temples and learning about the masters, teaching and lifestyle in Korean Buddhism, I felt, or I knew, that Korean Buddhism's Jogye Order(대한불교조계종) was the right tradition for me to renounce in.

나는 대학에서 처음 불교를 배웠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믿게 되었다. 내 신념이 자라고 출가를 원하게 되면서 나는 참선을 배우고 수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일본 조동종 선원에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한국 선과 불교 전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끌리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염불을 듣고 한국 절 사진을 보고 선사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면서 나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내가 출가하기에 맞는 전통을 가졌다고 느끼고 알았다.

It looks to me like Buddhism in America is flourishing, and I only hope that the hav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authentic practice continue to be availabl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Though I am now living in Korea as an American monk and I plan to stay here for some years to come, I think about my people back home and how this 1,600 year old Korean Buddhist tradition can be translated, or adapted to assist the spiritual awakening of us Americans, living in a very individualistic and materialistic culture. I hope that we Buddhists who have had the good fortune of hearing the Buddha's teaching and have to way of practice, do not forget those people living in countries where Buddhism does not exist. In the future, I hope the 대한불교조계종 continues to spread the Dharma in foreign countries(국제포교), and that the monks of 송광사 can assist in this noble and meaningful work.

내가 보기에 미국에서 불교는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교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정한 수행법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비록 내가 미국인 스님으로 한국에 살고 몇 년간은 이곳에 머물고 있겠지만 나는 내가 돌아갈 고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1600여 년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전해 줄 수 있을까?,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미국인들에게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우리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이들이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훗날 나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국제포교로 불법을 전파하는 것을 지속했으면 하고 송광사 스님으로서 이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도울 수 있으면 한다. 定慧社



Compromise (타협) 진담眞潭 | 치문



Coming from a different culture and immersing into another is a big adjustment for many people. For foreigners, the adjustment is not an easy one. Even for someone from the same country, the person still has to adjust to regional differences in culture. Often in the adjustment period the participants vent their anger out, and from that when another person pays attention, it will allow that person to

understand the others. Those who choose to focus on themselves will find themselves perpetually stressed out from misunderstanding.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과 다른 것에 빠져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적응이 필요하다. 외국인에게는 쉽지가 않다. 비록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종교의 문화에는 적응이 필요하다. 종종 적응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배려할 때 그들은 화를 배출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 자신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Living in a Kangwon, each person brings in his own unique background. When all participants gather, each will have to adjust to the others to create harmony. When there is a fallout, usually one or two persons will emerge as peacemakers. Compromise is the key for maintaining harmony. In compromising, it is not about just giving up one's opinion, but it is about finding a common ground for all of us. Kangwon is about doing things together and not promoting individualism. With compromising, we can begin to shed away our ego a little at a time. It is also a good way to practice Buddhism.

강원에서 생활하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적응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결과가 있을 때 항상 한두 사람의 중재자가 나타난다. 타협은 조화를 유지하는 해답이 된다. 타협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찾는 것이다. 강원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곳이지 개인주의를 조장하지 않는다. 타협으로써 우리는 짧은 시간에 우리의 자만심을 버릴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불교 수행의 좋은 방법이다.

Compromise does not have to be mutual because it can be started by oneself. Keeping harmony is such an important matter that if one person chooses to keep harmony but giving up his opinions/demands, that in itself is a compassion, is it not? It is not really important what others

can do to make compromise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what one chooses to do what he is capable of doing.

타협은 스스로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적이지 않다.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의견/욕심을 버리는 것을 바란다면 그 자체로 타협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定慧社**

개 정원淨圓 | 치문

개는 주인을 닮고, 주인은 개를 닮아간다.

많은 개들이 그렇듯이 내가 키우던 그 개도 산책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 주인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더 많이 좋아 했던 것 같다.

피곤한 말에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 그와의 시선이 마주칠라 치면, 눈이 마주친 어느 신혼부부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산책을 갔다. 그러다 내게도 야밤에 개랑 나다니는 몹쓸 습이 들었고, 그 개도 주인을 잘 못 길들인 죄를 무척이나 피곤한 날에도 무거운 몸을 추스르고 꼬리치고 난리치며 주인을 따라 나서야만 하는 과보를 받았다.

개는 주인을 닮고, 주인도 그 개를 닮아가듯 존재의 외면은 내면을 닮아가고, 내면도 외면을 닮아간다.

열 살 때 나는 그냥 간단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 뒤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너 왜 딴 생각하니?’

나는 깜짝 놀라, 내가 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할 때 항상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 스님네들이 말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공양할 때는 머리를 숙이지 말며 물건들을 제자리에 잘 정돈하고 자세를 단정히 하라는 이 모든 말들이 어찌면 밖으로 드러난 삶의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음으로써 내면을 바로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내면에 품은 생각들을 감추려 말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엔가 몸짓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런 마음 다잡으려는 나의 몸가짐을 언젠가는 나의 마음도 알아줄 날이 있겠지!!! **定慧社**



3살짜리도 다 아는 얘기 일각一覺 | 사집



강원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군대보다 두 배나 긴 4년이지만 평생할 노릇이라
생각하니 지나온 2년도 그리 지겹지 않았다.

과거, 언젠간 출가하리라는 마음 때문에 당시 하
던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내버린 24년이란 세
월이 지금에서야 많이 후회된다.

난 어차피 출가하여 마음공부를 할 것이기에 지
금 배우는 일들과 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부처님 법은 세속에서 성공하기 위
한 어떤 노력과 가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그저 바닷가에서 예쁜 돌 줍는 일처럼 하찮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출가하여 절집의 법도와 생활을 익히고 적응해 가면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내
게 하신 말씀은 ‘현재에 충실해라.’는 것뿐이었다.

누가 내게 출가하여 3년 동안 배운 것을 말해 보라한다면 난 주저 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고3 수험생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군인들은 제대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우리 사
미스님들은 비구계를 받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클수록 미래만 바라보게 되고 현재와
는 멀어진다.

중노릇 10년 하면 공부도 10년 치가 되어야 할 텐데 미래를 위해 소모하는 현재를 사는 사람에겐 그 10
년이 한나절을 정성껏 보낸 것만 못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순간순간 처한 일에 집중하고 살았을 때가 잡념이 적었고 후회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간 일, 다가올 일을 걱정하며 살았을 땐 당시 하던 일에 항상 지장이 있었고 잡생각이 많았으며
후회도 많았다. 이 일은 말처럼 쉽진 않지만 생쌀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듯이 생각할수록 노력
할수록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된다.

펜을 들었는데 오통 이러한 고리타분한 얘기들뿐이다. 아마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데인 듯하다. 定慧社

출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일현一現 | 사집

군대 전역 후 출가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출가 전과 출가 후를 돌이켜 보면 지난 날 나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들이뻐는지 모르겠다.

강원에 방부를 들인 나는 하안거의 2/3를 지장보살과 만남을 가졌었다. 때론 억울할 때도 있었고 이가
갈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덧없음을 알게 됐을 때 착각 속에 있는 나를

보았다. 삶에 있어서 굳이 억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의미 없음을 보았을 때 그냥 할 뿐이다. 그냥 하다보면 현재
현재일 뿐이다. 定慧社

안거 그리고... 진상眞常 | 사집

절 집안에 다소 악명 높다는 송광사의 고온다습한 하안거가 언제 있거나 했느냐는 듯이 벌써 동안거가 시작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했던가. 여름과 달리 그나마 겨울은 매섭다는 악명은 받진 않았으니 딱히 손해는 아닌 것 같다.

겨울의 상징인 눈이 올 겨울 들어 한 번 내렸었다. 눈이 내렸다는 이 한마디는 조건반사적으로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게 한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눈이 내리지 않았나?' 밖을 보게 된다. 혹 눈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거나 하듯이 평소와 달리 모두들 지대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는 운력복을 갈아 입고 대웅전 앞마당에서부터 서점 앞을 지나 해우소에 이르는 보행구간에 길을 뚫는다. 눈 쓸기가 끝나면 종고루의 대종이 치기 전까지 대웅전에 가서 자리에 앉는다.

그렇다! '눈이 내린다.'는 말의 의미가 내게는 이렇게 바뀐 것이다.

출가하기 전이었다면 눈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던가!

순백의 이미지, 청순함, 깨끗함, 스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등이 아니었던가?

내가 보기에 나는 여전히 나이고, 예전의 나는 그저 지금의 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 왔지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절집의 물이 들고 있었나 보다.

새하얀 눈을 마주하고 나서야 희미하게나마 내 안에 절집 물든 것이 비로소 비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관광객들이 눈 위에 하트를 그려놓고 이름 이니셜을 써놓은 것을 보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았던 내 행자시 절부터 나는 서서히 물들고 있었나 보다.

명점을 만들려면 '달궀다, 식혔다.'를 반복 계속 두드려야 하듯이... 황태가 만들어지려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찬바람과 눈을 맞아야 하듯이... 하안거의 뜨거움과 동안거의 차가움을 매년 반복하며 이런저런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중'이 되어가나 보다. 定慧社



한 시

원승圓昇 | 치문

심 수 만 경 전
心隨萬境轉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굽이치나니

전 처 실 능 유
轉處實能幽

굽이치는 그 자리가 실로 그윽하다네.

수 류 인 득 성
隨流認得性

이 흐름을 따라 본성을 알아버리면

무 희 역 무 우
無喜亦無憂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또한 없다네.

- 마나라 존자 -

심 경 경 상 흔
心境鏡上痕

마음과 경계가 거울 위의 흔적이니

흔 진 진 현 전
痕盡眞現前

흔적 다하면 참이 앞에 나타난다네.

진 여 자 무 생
眞如自無生

참된 마음자리에는 스스로 나는 것이 없으니

무 생 역 무 심
無生亦無心

나는 것이 없으면 마음 또한 없다네. 定慧社

가 피

원산元山 | 사집

스님이 되고 나서 젊은 신도나, 나이 어린 청소년 신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기도에 의한 가피나 전생 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심지어 불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크게 위험했을 때나 내 힘으로 어찌하기가 어려웠을 때, 기도와 노력으로 극복한 적이 많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내가 군복무 중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육군 상병이 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우리 부대 바로 옆에는(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꽤 큰 산이 있었다. 그 산 꼭대기에는 방공포대가 있어서, 산 중턱 이상은 민간인에게 출입금지였지만, 중턱 이하는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많은 부대 앞마을 시민들이 찾곤 했다. 그 산 아래쪽에는 물맛이 좋다고 소문난 약수터가 하나 있었다.

그 곳에서 40미터 떨어진 곳에 영외에서 훈련할 때 부대원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소각장이 하나 있었다.

정기적으로 우리 부대에서 인원을 보내 그 곳에서 소각을 하곤 했다.

내가 상병이 되어 소각하게 되었을 때, 원래는 쓰레기를 좀 뒤져보고 난 후에 소각을 하게 되었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가 났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가지고 간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소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다지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여유 있는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멀리 부대 앞마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순식간에 밝은 빛과 열기가 내 주위와 내 몸을 감싸더니 내 머리와 얼굴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내 사그라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변은 삼시간에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겨울이라 옷을 두껍게 입었고, 다른 곳은 다 멀쩡했지만 얼굴과 귀 손 등이 빨갱게 익어 화끈거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의무중대에 바로 내려가게 됐고, 내가 있던 수색중대 중대원 전체가 투입되어서 소각작업을 했다. 다행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중에 사고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소각장 바닥 쪽에 오래 전에 버린 가스통이 여러 깡통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다가 녹이 슬어 얇아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 위로 쌓인 가동 P.T병, 플라스틱 병들이 불이 붙어 녹아내리다가 그 녹슨 가스통을 녹여서 남아 있던 가스가 순식간에 불이 붙어 위로 올라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폭발



하지 않고 연소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폭발했다면 아마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사실은 내가 치료를 받고 난 한참 후에 알게 된 일이었고, 사고 당시부터 치료할 때까지는 경황이 하나도 없었다. 의무중대에 간 나는 의무중대장에게 상처부위를 보이자 상당히 난감해 하며 1,2,3,도 화상이 고

루 있는데, 일단 여기서 치료해보고 안되면 국군병원으로 옮겨 보자고 했다.

머리는 원래 스포츠 군인머리였는데, 흑인머리처럼 꼬불꼬불해져서 탄내가 나고, 얼굴은 빨갱게 익어서 부어 있고 입술은 퉁퉁 부어 소시지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식발을 해야 머리가 새로 난다고 해서 머리도 식발하고 눈썹도 밀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갖은 치료를 해주었다.

치료를 받고 거울을 보니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날 치료를 다 받고 취침시간이 되어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바로 앞 침상에는 본부대원 20여 명이 침상에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단체로 세면발이(성병의 일종, 1명이 옮겨 오면 옷과 이불을 통해 부대원 전체에 옮겨진다.)에 걸려서 격리 수용한다고 의무대에 보내진 사람들이었다. 전염성이 있어서 나는 침상 1개를 통째로 쓰고 그들은 건너편 침상을 20명이 쓰게 되었다. 부대생활에서 열외 되어서 좋았는지 하루 종일 장난치고, 떠들다가 밤이 되어서는 좁은 침상 위에 새우잠을 자는데도 ‘코’ 까지 골며 잘만 자는데,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이 얼굴이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안되면 어쩌나.. 이대로 잘못되어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눈길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군대에서 만원 조금 넘는 돈 받으며 봉사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건가? 갑자기 나라가 원망스럽고, 나를 그 곳에 보낸 부대가 원망스럽고, 확인하지 않고 소각한 내 자신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다. 그렇게 한참 화를 내고 나서 이번에는 침울한 기분이 되어 많은 걱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기도 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렇게 번뇌, 망상을 피우며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들었다, 났다 하는 것이 더 괴로웠다.

한참을 그러다가 한 순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차라리 기도라도 열심히 해 보자는 마음이 났다. 군대 오기 전에 대학생불교학생회에 있었기 때문에 법회 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 이야기를 들어 봤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열심히만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내가 아는 모든 불교 성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보현보살, 문수보살……(원래 기도는 한 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당시 나는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얼굴과 손을 원상회복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해주면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평생 불자로 열심히 살겠다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분들을 염했다.

낮에 본부대원들이 떠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내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머릿속으로 절 탕화에서 보았던, 자비로운 불보살님들의 모습을 또렷이 생각하며 입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그분들의 명호를 외쳐 불렀다.

내 생애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는 그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웬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프던 곳들이 간지러워지면서 각피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삭발했던 머리에는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부었던 피부가 까맣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까매진 피부가 껍데기가 되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벗겨진 피부사이로 새살이 돋기 시작했다.

입술은 소시지처럼 부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껍데기가 되어 갈라지면서 그 큰 입술 속에 작은 입술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15일 동안 뱀이 껍질을 벗듯 얼굴피부를 완전히 한번 박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벗겨진 피부 위로 새살이 돋아났다.

나를 치료하던 의무병도 무척이나 신기해했고, 나를 치료하던 의무장교님이 신기해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화상치료를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피부회복력이 좋으며, 의무기록에 남겨야겠다고 까지 했다.

그렇게 15일이 넘어서 퇴원을 하게 되어 나는 다시 우리 수색중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대에 복귀했을 때 우리 중대원들이 “화상 입어서 엄청 안 좋다고 하더니만,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왔구먼.”하며 신기해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찔하다. 그만큼 그때는 절망적이었고,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었었지만 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그때 의무병과 의무장교님이 성실히 치료해 주셨고 불보살들도 가피를 내려 주어서 지금 멀쩡한 얼굴로 산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후 시간이 흘러 출가하게 되었고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시던 노스님께서 나를 잠시 보더니 “너, 예전에 불보살의 가피를 받은 적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라고 하시자,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났던 것은 우연일까?

아무튼 나는 불보살님과 기도의 힘과 가피를 믿는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돕고 싶어 하시는 불보살님들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도 깊은 신심으로 기도하시며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定慧社**

四名 명적 | 치문

봄이라 꽃이 피고
꽃이 피어 봄이라 이름하네.

여름이라 더위 찾아지고
더워지니 여름이라 이름하네.

가을이라 낙엽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니 가을이라 이름하네.

겨울이라 눈이 내리고
눈이 내려 겨울이라 이름하네.

사색풍경 명적 | 치문

봄이라 꽃들 찾아오고
꽃이 피어 봄 찾아왔네.
개나리, 진달래
안녕! 하며 인사하는구나!

여름이라 더위 찾아오고
더워지니 여름 찾아왔네.
계곡소리, 파도소리
더운 여름 식혀주는구나!

가을이라 낙엽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니 가을 찾아왔네.
은행, 단풍 새 옷 입는다고
얼싸절싸 춤추는구나!

겨울이라 눈 내리고
눈이 내려 겨울이 찾아왔네.
천진동자 눈 장난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구나!



일현 | 사집

언제나 변하고 변하여
내가 아닌 니가
니가 아닌 내가
되어 제자리로 돌아오고

떠나신 분
돌아오신 분

그리고 행여
인생의 꽃을
하나하나 즈려 밝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행운을...

마음 수용 | 사집

우리의 마음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려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나쁜 것은 가려내고
좋은 것은 상대에게 줍니다.
마음은 바위도 통과합니다.
좋지 못한 말을 들을 땐
상처를 입고 아파합니다.
말은 말뿐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제 혜적 | 사집

눈을 떠도 보이지 않고
눈을 감아도 들리지 않는데
구름이 걷히면
노란 외꽃에 벌이 앉는 소식을
알 수 있으려나.

부처님들께 동은 | 사미반

부처님들께
여러 부처님께서 행복한
꽃과 보배를 지녀
항상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온갖 죄를 제가 벌써 지었을 때는
참배하고 참회하여 그 모든 죄 길이 없애고
여러 온갖 죄를 제가 지었을 때
언제나 그 모든 죄 멀리 여의리.
다른 이의 복되고 좋은 일들은
따라서 기뻐하고 다함께 행복하며 베풀어 주시어
위없는 깨달음에 참배하오며
부처님께 바른 법의 말씀과 같이
원력을 세워 굳건하고 깨달음에
진실하며 성실하여 부처님들께
언제나 예배하며 참회합니다!

봄 수암 | 사집

온 하루 봄을 찾아 헤매어도
봄을 보지 못하였네.

까끄라기 신발 농산 끝 구름에 이르도록
널리 찾아 헤매었네.

지쳐 돌아와서 우연히 매화나무 가지 잡아
냄새를 맡았었네.

봄은 이미 십분 가지 끝에
있었네.



목우정에서 덕인 | 사집

죽을 곳을 찾아나서 조계뜰을 떠났다가
이삼년을 헤매본 뒤 죽기위해 다시 왔다.

오랜 세월 갈망 속에 내 주인공 찾으면서
발자취를 따라가며 소울음도 셀 수 없이

잃어버린 애기소가 어미 찾듯 간절하게
오세암의 길손이가 엄마 찾듯 애절하게

키질만을 오래오래 지칠 듯이 한 해 두해
홀로 앉아 물어 본다 나의 소는 어디 있나?

배움이란 우암 | 치문

시작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배움이요.
멈추면 태만 속에
빠져들어 헤어날 길이 없고
태만이란 것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계속 태만을 지속시키게 조장한다.
나로 하여금 다른 이가 되고
다른 이가 내가 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려 해도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한 순간의 빠짐은 나로 하여금 무척 힘들게 하는
내부의 적을 키워 나가는 것과 같다.

조각배 시안 | 치문

바다 한 가운데
조각배 하나
홀로 떠다니고 있구나!

주인은 무엇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구나!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건만
부두로 돌아갈 생각 없이
한가로이 떠다니고 있구나!

따스한 햇살은 사라지고
갈매기 울음소리 커져 가건만
무엇하고 있는가?

어느덧
파도는 거칠어지고
빗방울 하나 둘 떨어지건만
무엇하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으니
뺏머리를 돌려 노를 저어라!
어서 노를 저어라!!



행복 수용 | 사집

행복이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오늘 하는 일에 만족하고 고마워 할 줄 알고
남모르는 선행을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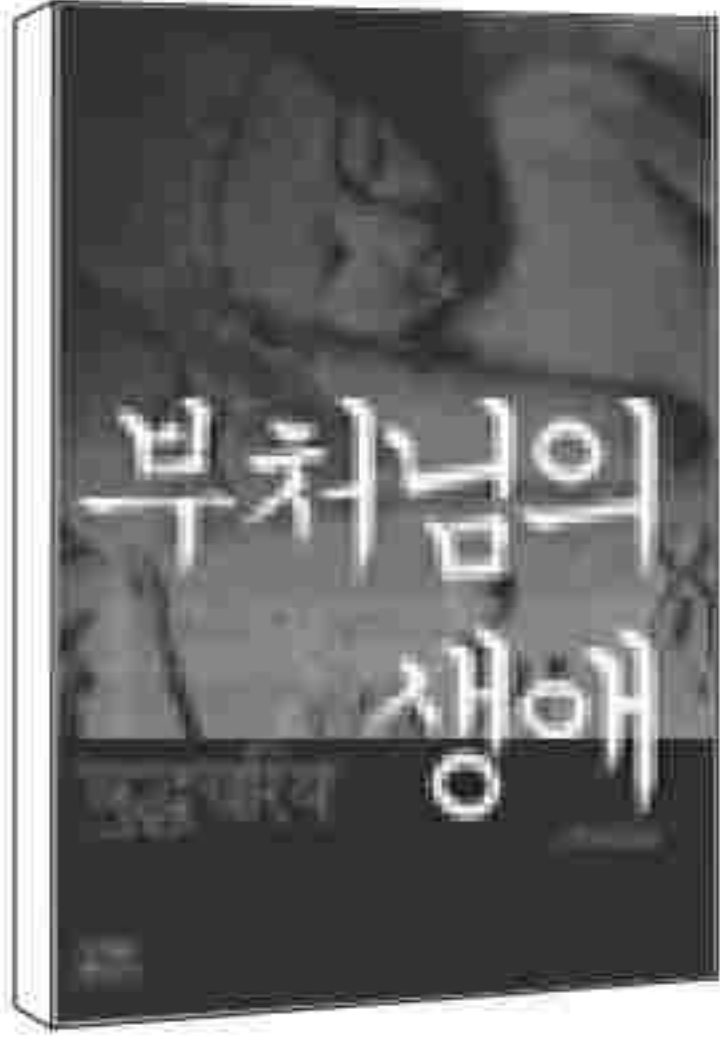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송광사 정혜사)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061)755-5302



수행의 시작과 끝

-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심법尋法 | 사교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다른 여느 사찰과 달리 승보전僧寶殿이라는 전각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 그리고 천이백오십 인의 아라한 상을 모신 승보전은 거룩한 승가를 보물로 삼는 승보종찰僧寶宗刹의 상징적인 전각이라 할 수 있다. 매일 저녁예불 전, 이곳 승보전에 들러 예불을 올릴 때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그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직접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2500여 년 전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어 번뇌를 끊고 해탈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나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 이리도 헤매야만 하는 것일까?’ 온갖 생각들 속에서 또렷한 한 가지는 ‘나’ 라는 존재가 ‘깨달음’ 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승보전 외벽에는 유명한 심우도尋牛圖가 그려져 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심코 승보전 곁을 지나가다 심우도에 눈길을 주게 되었다. 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데, ‘깨달음’ 의 자리, 내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해탈’ 의 자리는 수행의 마지막, 완성의 자리가 아니었다. 심우도의 마지막 그림은 입전수수入塵垂手, 다시 말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나의 수행과 공부는 애초부터 좌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통 받는 중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야말로 진정한 대승보살도의 길이라고 신도들을 향해 앵무새처럼 읊어대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 벽화

‘나’라는 헛된 상을 견고하게 쌓아올리고 오직 나만의 깨달음을 갈구하고 있었다. 중생들을 향한 회향은 깨달음 뒤의 일이라며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다시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의지해야 할 때였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p19, <부처님의 생애> 中



입전수수(入塵垂手)

부처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할 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처음부터,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고, 끝까지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심우도의 마지막 그림은, 수행의 시작이 곧 수행의 완성이라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삶을 통해 내게 설해주고 있었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이 가없더라도 맹세코 건져내겠다는 큰 서원이야말로 수행자에게 있어 진정한 출발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처음 머리를 깎고 절집에 들어왔을 때, 한 스님께서, 가슴속에 간절할 절切자를 단단히 새기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 앞으로 출가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을 것이고 물러서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향한 간절함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긴다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아 출가수행자가 된지 이제 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처음 마음을 냈던 그때만큼의 간절함이 남아있는지 반문해본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저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니 그저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지금의 나에게는 부처님의 삶을 따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정진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퇴전不退轉의 큰 서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어언 25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비록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비록 육신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나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출가수행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간다면, 나와 부처님 사이에 가로놓인 2500여 년이라는 시간의 격차 따위는 한갓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것임이 틀림없다. 언제 어디서나 시방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과 함께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온 대지의 못 생명을 깨우는 범고 소리가 송광사를 울리기 시작한다. 저녁 예불 시간이다.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이 북소리를 듣고 무명에 휩싸여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나아오시라는 간절한 울림이 조계산을 휘감아 돌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조심스레 장삼자락을 여미며 법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지금 내딛는 이 걸음이 언제까지나 부처님을 향한 걸음,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발원한다. 고통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몸소 해탈의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과 같이, 나도 또한 오직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간절한 발원을 가슴속에 새겨 본다. '지심귀명례' 至心歸命禮, 내 안에 계시는 부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定慧社**

소년소녀가장에게 따뜻한 손길을



올 겨울에는 눈이 유달리 많이 오고 있네요.
1월 15일~16일 순천 금당절에서 아이들과 겨울방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서로 질세라 넘어지기도 하고, 끌고 밀어주면서 기차놀이도 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는 순천, 구례지역에 9가정 14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아이들지킴이(후원자분들), 송광사 학인스님들, 순불청(순천불교청년회), 대불련(순천 청암대 대학생불교연합)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후원 물품(반찬, 동화책, 장난감, 옷, 학용품, 등)은 무엇이든 항상 기다립니다.

♥ 정기 후원금 : 1만원

♥ 우체국 : 501676-01-002074 예금주 : 송광사(소년소녀)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강원 심범스님

소임자 : 서공, 심범, 수암, 명적 ☎061)755-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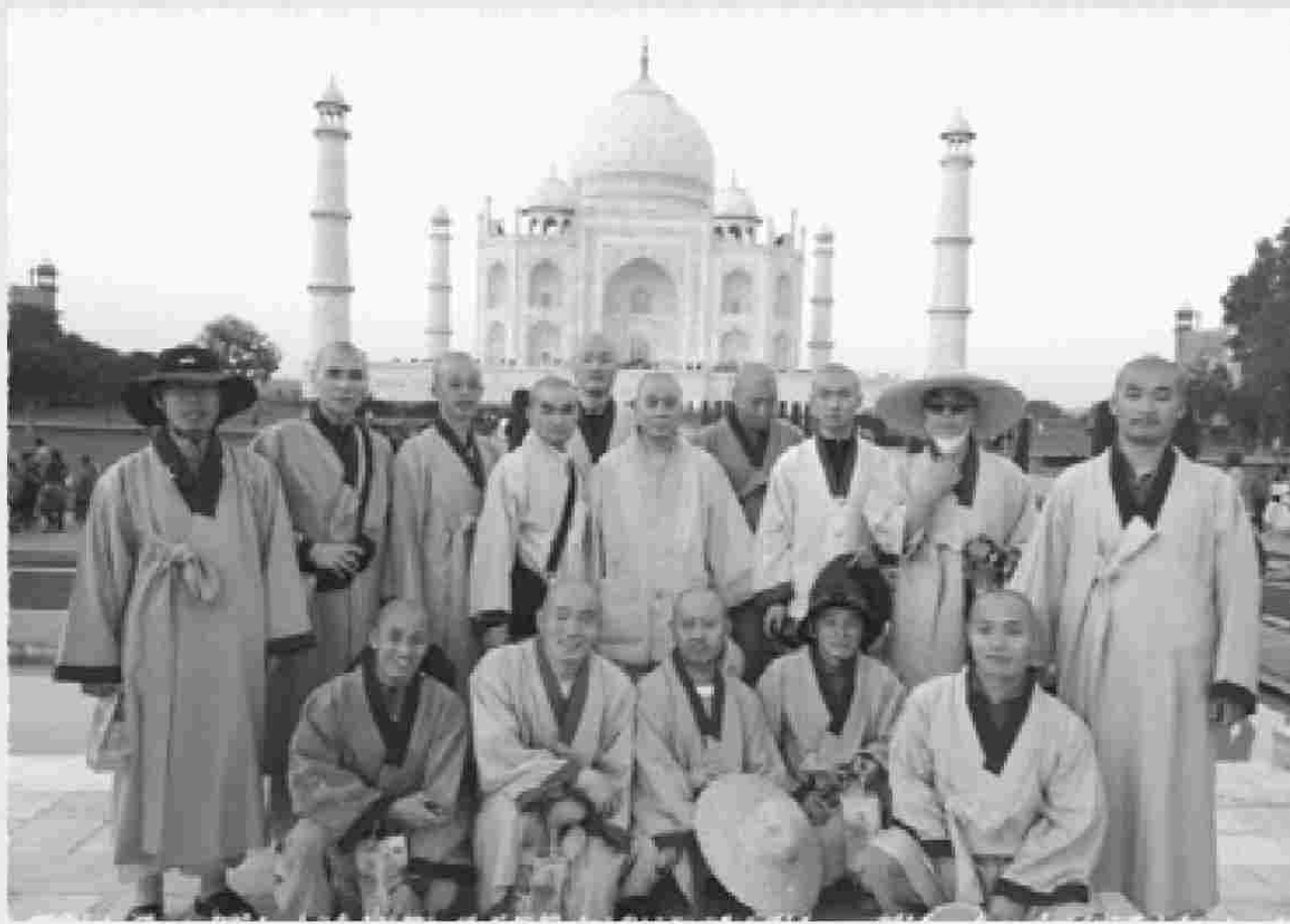
인도 성지순례

혜철惠哲 | 대교

비행기 한 번도 안타본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게 됐다. 그것도 머나먼 인도 여행을 하게 되었으니 무척이나 설레고 감개무량하다. 때는 불기 2554년 경인년 서기 2010년 12월 14일 겨울, 한국 시간 13:50에 마침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의 수도 델리를 향해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날았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소문과는 달리, 에어 인디아의 기체가 커서인지 별다른 떨림도 거의 없이 가뿐히 떠올랐으며 소음도 거의 없이 안락했다. 곧 기내의 서빙이 이어졌다.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짹짹하고 톡 쏘는 매콤한 맛의 인도과자를 먹고 나니 중식이 나왔다. 기내식은 배지(배지테리언 ; 야채식)와 닭고기 뿐 이라고 해서 귀동냥으로 무조건 배지, 배지라고해서 처음으로 인도음식을 먹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단 꽤 괜찮은 편이었다. 홍콩을 경유 해서 이륙고, 한국보다 3시간 30분이 느린 인도시간으로 21:30 경에 델리 신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버스로 이동 중 델리의 밤거리 풍경은 한국의 어느 지방도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기대엔 못 미쳐 좀 실망스러웠다. 고급 호텔인 제이피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08:30(이하 현지시간)에 출발하여 델리 국립박물관으로 갔다. 여기엔 피프리카와에서 발굴된 부처님 유골 사리가 모셔져 있다. 우리는 이 사리를 친견하고, 삼귀의례와 반야심경과 사홍서원으로 예경을 드렸다(삼귀의와 사홍서원은 예경할 때마다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생략하겠다). 이어서 이 땅에 무굴제국의 상징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성을 관람 하였다. 그 섬세함과 화려함과 웅장함은 참으로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인도’ 혹은 ‘인디아’ 라는 말의 유래는 인더스(Indus)강에서 유래되었다. 인더스 강의 원명은 신두(Sindu:大河)인데 ‘스’ (s) 발음을 잘 못하는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힌두(Hindu)’ 로 변형되었으며, 힌두는 다시 회교도(무굴)의 침입 이후 ‘힌두스탄’ 으로 바뀌었고, 유럽인들에 의해 ‘인디아’ 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쯤하고 발길을 서둘러서 보름간의 긴 여정을 쫓아 가보자.

다음날 상카시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염부제(고대 인도인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잠부드비빠(잠부나무의 나라), 한역으로 ‘염부제’ 라고 불렀다.) 로 하강하실 때 신통력으로 삼도보계로 변하게 하여 밟고 내려오신 이 곳 꿈의 계단에 올라가 한쪽 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아래서 반야심경을



타지마할에서

독송하고 축원을 했다. 이곳은 부처님 족적이 남아있는 곳에 힌두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태국스님들이 그 옆의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 예배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힌두사원 때문에 더 이상 발굴 작업을 할 수조차 없어 방치되어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아래 아쇼카 석주는 맨 윗부

분에 코끼리상이니 사자상이니 한가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목이 잘리고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는 릭나우에서 한 밤을 자고 나서 쉬라바스티에 도착했다. 이곳에 있는 한국 절 천축사에 들러 법당에 참배하고 주지스님의 친절한 안내로 도량을 살펴보았다. 넓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다음, 기원정사에 가서 금강경 독송과 축원을 하고, 수닷타 장자의 집터와 앙굴리마라의 스투파가 한 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이러니를 뒤로 하고, 부처님의 도리천 상승과 일천 부처님의 화현 장소인 천불화현 터에서 석양을 맞았다.

다음날 샤카족이 분배받은 피프리하와 부처님 사리탑(부처님 진신사리는 델리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음)을 참배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왕의 인장이 나와서 이곳이 진짜 카필라성이 아니겠는가 하고, 인도 정부와 세계적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 정부 측에서는 아예 이곳 지명을 카필라바스투라고 바꾸어 정했다고 한다. 그럼 네팔의 카필라성은 어찌란 말인가? 어쨌거나 우리는 탑 뒤편의 나무그늘에 시원하게 앉아 점심도시락을 맛나게 먹었다. 쿠키의 한국음식 요리 솜씨가 일품이다. 마치 여기가 인도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전에, 마냥 소풍 나온 것처럼 흐뭇해 하며 다시 이동하여 인도와 네팔 국경을 지났다. 이곳 네팔 국경지대는 인도와 사뭇 달라 보였다. 약간은 보다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활기차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약 40분쯤 가서 룸비니에 도착했다. 여기에도 한국 절 대성석가사가 있다. 천축사에서처럼 우리들 대중을 반갑게 맞아 주시는 주지스님께서 이런저런 사정을 잘 설명해 주셨다. 다음에 또 오면 꼭 들러보고 싶다.

룸비니에 있는 마야데비사원은 자전거로 끄는 릭샤를 타고 들어간다. 우리는 마니장삼을 미리 수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입고 마니장삼은 가방에 넣어 들고 릭샤에 탔다. 가면서 보니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과 그 사이로 걸어가는 티벳 스님들도 보이고 태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스님들도 보였다. 가사를 수하고 스님다운 모습으로 순례하는 여법한 타국의 스님들 앞에 우리 한국 스님들의 편리한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부끄러웠다. 스님으로서 가사장삼 수하기를 불편해 하고 거추장스러워하여 들고 다니다 겨우 의식할 때에나 잠깐 수했는가 싶다가는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법당 앞에서 가사장삼 빨리 벗기 경주를 하니 이것은 무슨 경우인가. 정법을 수호하는 승가에서 만사 편법만능주의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내 사원에 들어가서 반야심경 독송과 축원을 하고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 아기뱀다를 씻겼다는 구룡포수 연못과 아쇼카 석주 등을 순례하였다.



룸비니동산

다음날은 네팔 쪽의 카필라성에 가서 서문과 동문 그리고 부처님의 애마인 칸타카가 부처님을 그리워하다 죽은 자리에 무덤을 보고 이동하여, 부처님께서 성안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러 계셨던 이곳 쿠단에 가서는 정반왕이 성에서 나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마하파사파제 왕비가 이곳에서 금란가사를 받쳤으며, 라홀라가 출가한 곳이 바로 이 곳임을 알았다. 이어서 8대 사리탑 중의 하나이며 마야부인의 친정인 콜리아족이 분배받아 세우고 아쇼카왕이 해체복원을 시키지 못하여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람그람 사리탑을 참배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입정에 들어 한참을 앉았다가 일어나서 법성계를 외며 탑돌이를 하였다. 그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의 쿠시나가르에 가서 부처님의 열반 성지인 곽시쌍부 열반당과 부처님 다비장인 라마스투파를 참배하고 각각 반야심경과 열반경 등을 독송하고 법성계를 외며 탑돌이를 하였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 저녁 공양을 할 때였다. 이번에는 일부 스님들이 티셔츠에 조끼만 입고 나오거나, 심지어 어떤 한 스님은 아예 위아래 다 속복 차림으로 식당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스님들에게는 ‘밥 먹는다’고 하지 않고 ‘공양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최소한 적삼이라도 승복을 입어야 공양 받을 자격이 있다하지 않겠는가. 위에서 가르쳐서 아래로 흘러내려와 고인 물이다. 편리지상제일주의 한국승단은, 참으로 이상한 그릇된 습성을 반드시 돌아보고 깊이 성찰할 일이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출발하여 한참을 가다가 어느 초라한 시골동네에 차를 멈추고 비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조그마한 동산이 나왔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공양을 드신 춘다의 공양 터이다.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성도 했을 때 우유죽을 바친 수자타의 공덕이나 열반에 들게 한 춘다의 공덕이 같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쇼카왕이 수자타스투파와 같이 이곳에다가도 스투파를 세웠다고 한다. 또 한참을 달려가 만난 케사리아에는 부처님께서도 좋아 하시고 이들도 부

처님을 단 한 번도 음해한 적이 없는 릿차비족이 강에 떠내려 온 부처님 발우를 모셔다 세운 부처님 발우 탑을 참배하고 이들의 나라 밧지국(릿차비족과 밧지족의 동맹국)의 수도인 만난리성, 제2차 결집지인 현재의 바이살리에 가서 릿차비왕이 지은 세 번째 정사인 대림정사의 중각강당과 아쇼카 석주와 아난존자의 사리탑일 거라고 추측한다는 스투파를 참배하고 이동하여 원뿔형 지붕이 시설되어 있는 부처님 사리탑 터에도 가서 참배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법성계를 외며 탑돌이를 하였다. 그리고는 이동하여 보드가야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방도 비좁고, 창문도 없이 답답하고, 냄새 나고, 환풍기도 없는 곳이어서, 불평이 쏟아졌다. 어느새 가이드가 밖에 나가서 다른 곳을 알아보았다. 한 시간도 훨씬 넘은 한참 후에야 가이드가 돌아와서 “이 곳에서 3일간 머물러야하니 불편하신 듯해서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서 이틀간을 모실 테니 오늘만 참아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다.

다음날 라즈기르의 왕사성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보니 참으로 오랜만에 산을 다 보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야! 산이다.”하면, “어디 어디!”하고 맞장구를 쳤다. 마치 산처럼 생긴 것을 처음 보듯이... 그리고 한바탕 웃었다. 이곳은 산이 있었다. 이때에 왕사성 터 안으로 들어가 영축산 아래에서 부터는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 길은 일본인들이 출자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시의 빌딩 계단처럼 만들어서 전혀 산길 같지 않아 영 맛이 나지 않았다. 꼭대기에는 독수리 모양의 바위와 염화미소의 정법안장을 하신 그 터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화엄경 약찬계를 독송하고 축원을 했다. 그 옆으로 건너편 산꼭대기에 남묘호랭계교 일본사원이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다시 산을 내려와 이동하여 빔비사라 왕이 기증한 기원정사와 그의 아들 아사세에 의해 굶주려야 했던 그 처절한 감옥 터를 순례하고 나서, 내심 고대하고 있었던 나란다 대학에 마침내 당도를 했다. 과연 기대했던 대로 그 초입부터 보이는 그 규모가 정말 웅대하다. 안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건물은 다 허물어져 흔적만 남았지만, 당시로부터 전해지는 그 위용은 참으로 감탄 할만하다. 학인스님들의 방과 그 건물 네 귀에 교수사 스님들의 방과 그리고 도서관, 사리불스투파 등등, 바로 엇그제 까지도 살았을 법한 느낌이 들었다. 일렁이는 감동을 뒤로 하고 또 이동하여 아사세왕스투파에 둘러보니 그곳엔 힌두인의 공동묘지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인근 호텔 식당에서 점심도시락을 먹고 또다시 출발하여 제1차 결집지인 칠엽굴로 향해 갔다. 입구에 인도인들의 노천 공중목욕탕이 있어서 매우 번잡스러웠지만, 그곳을 지나 걸어서 수많은 계단을 따라 산길을 오르는 동안 “텐 루피~...”를 끊임없이 되뇌며 따라붙는 아이들이 극성이다. 칠엽굴 외관의 모습은 사진에서 보았던 거와 같이 비슷했지만, 다섯 개 구멍은 다 무너져 메워지고 이젠 이엽굴에 이마저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쉬움을 몰래 남겨두고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서 산을 내려왔다.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 이번엔 로얄 레지던스 호텔로 들어갔다. 이곳은 어제 호텔보다 훨씬 호화스러웠다.

다음날 새벽 네 시에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는 마하보디 대탑에 가서 그 탑 뒤편에 오롯이 서있는 제4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아침 예불을 올렸다. 송광사 아침 예불과 똑같이 마지막 백팔 배까지 그대로 했다. 이곳에 처음에 있던 보리수는 아쇼카왕이 파내버렸는데 곧 실수했음을 알고 크게 후회 했다고 하며, 그 후 세 차례나 새로 심었으



녹야원에서

나 다 살지 못하여 아쇼카왕의 공주가 스리랑카에서 묘목을 구해다 다시 심은 나무가 지금의 제4대 보리수라고 한다. 다시 호텔에 가서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또 달렸다. 먼저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신 고행림을 지프차로, 전정각 산은 도보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지프차로 수자타 집터와 스투파 그리고 우르빌라 가섭을 교화했던 가섭사원을 차례로 순례 하였다. 여기 있는 가섭사원에는 바닥이 막힌 우물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경전에 ‘동굴 안으로 묘사된?’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 한마디만 더하자면 이곳은 특히 사원 전체가 아예 힌두사원이다. 그 안에 한 칸 정자만을 가섭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불교 성지가 다 이와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성지 안에 한 중앙을 차지했거나, 또는 한쪽 편을 아니면, 그 주변을 에워싸거나 하여 힌두사원이 다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학술적 연구나 발굴 작업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다시 호텔에 가서 점심 공양 후 부처님께서 불의법문을 하셨다는 상두산에 올라 시원한 공기 알갱이를 좀 헤아려 보았다. 그리곤 노점상의 아이스박스 안, 얼음이 녹은 물에 잠겨 있는 망고 주스 하나 먹고 내려와서 다시 마하보디 대탑에 갔다. 금강보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과 7선정 터와 아쇼카 석주 등을 참배하고 백팔 배와 탑돌이로 회향 했다. 이곳은 오래전에 힌두성지로 점거했던 것을 미얀마왕이 인도 정부에 많은 현금을 내고 불교인 4명과 힌두인 4명과 정부관료 1명이 공동관리 하기로 합의하여 그나마 불교 성지로서 참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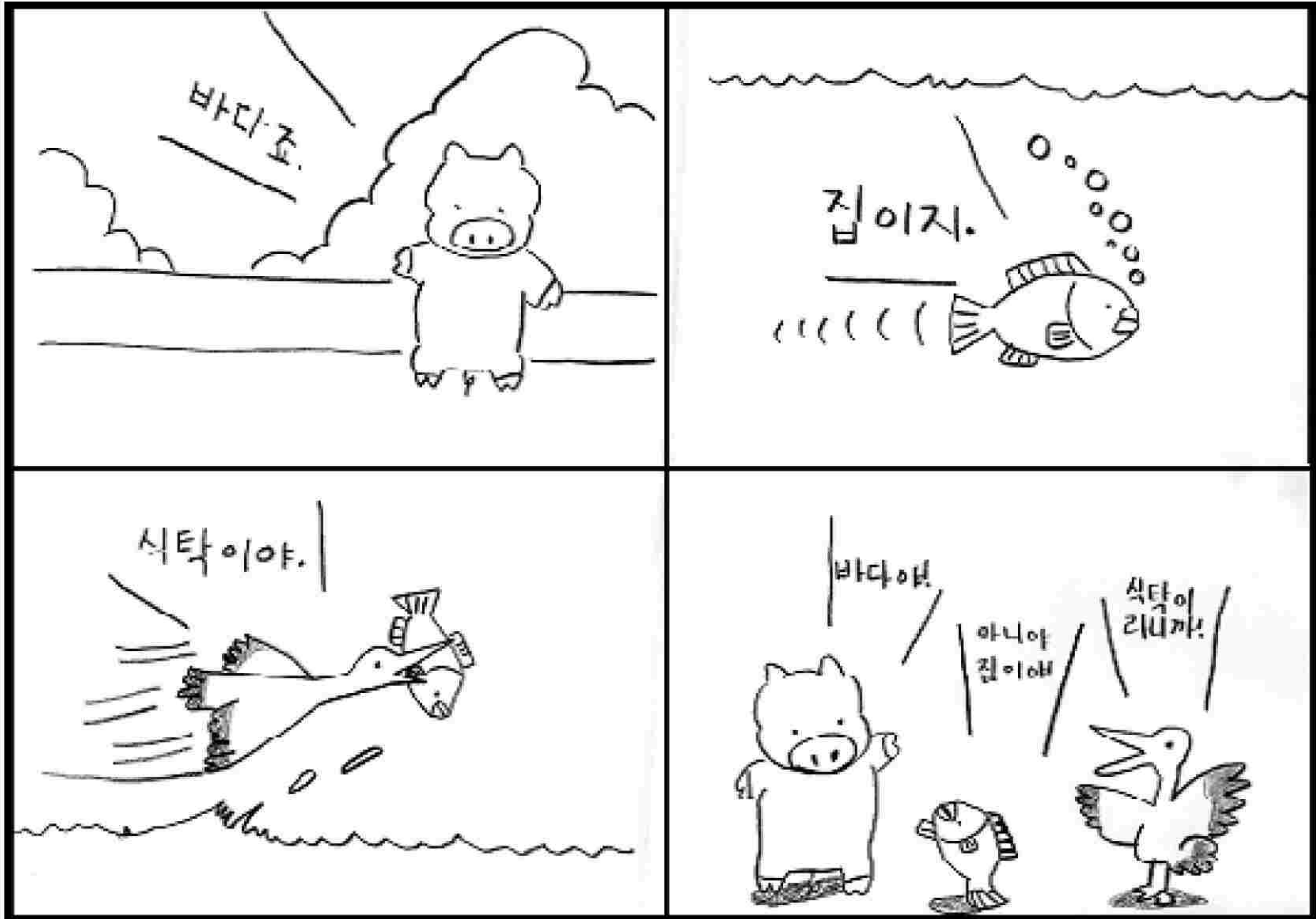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바라나시를 향해 달렸다. 이제 여행의 막바지다. 차안에서 누군가 자꾸 “바나나가 아니고 바라나~시!”라고 몇 번을 다짐 해 둔다. 온종일을 달려와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또다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는 릭샤로 갈아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로 복잡한 거리를 뚫고 갠지스 강가에 가서 뿌지 의식을 관람 했다. 좀 이색적인 모습이였다. 그런데 요령 흔드는 모습이 우리네와 꼭 닮

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배를 타고 유유히 유람을 했다. 갠지스 강은 참으로 도도하다. 그곳에서 누가 무엇을 해도 얼굴색 한번 변치 않는다. 이러한 것이 바라나시의 전 세계적인 상징물들인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웬지 마음이 묵직한 느낌이다. 이번엔 사르나트로 갔다. 이곳엔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인 녹야원이 있다. 그런데 또 이곳에는 사슴 한 마리를 우리에게 가뒀다. 녹야원이라는 표시인가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많은 기록들로 인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이다. 일부러 사슴을 우리에게 가두어서 괴롭힐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엔 실물표식을 하지 않고 유독 이곳에만 해야만 하는가 말이다. 좀 씩씩한 마음이 든다. 어쨌든 대중을 따라서, 다섯 비구를 다시 만난 곳인 차우칸디스투파, 초전 설법지인 담벡스투파, 다르마지카스투파, 최초 안거지, 그리고 아쇼카 석주 등을 참배하고 나서 호텔로 돌아와 저녁공양을 했다. 이 호텔은 식당이 두 곳이나 있고 음식도 다양했다. 일부 스님들은 음식 맛에 대해 미식가처럼 품평회를 했다. 맛에 꼬달려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나도 이런 자리에선 함께 즐겨 빠지지 않았다. 이 모두 식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소한 공양을 해야 할 수행자로서 식탐섭수 탐닉주의에 빠져있음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작금의 세태에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는가? 탁마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가? 淨濁을 구별도 못하면서 중도를 입에 담을까 두렵다.

다음날은 마지막 코스로 코삼비로 향했다. 가는 길에 너른 강에 부표교가 새삼 이색적이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한적한 시골동네에서 차가 멈추었다. 흔하디흔한 것 중의 하나인 벽돌공장이 있고 그 건너편 길 가에서 동네아이들이 크로켓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옆 나무그늘 아래서 점심도 시락을 먹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출발했다. 이곳은 코삼비승원의 스님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므로, 부처님께서 친히 가셔서 승단의 화합을 강조하신 곳으로 그 코삼비승원 터에 아쇼카 석주가 남아 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코스로 인도의 밤기차를 타기 위해 알라하바드 역으로 갔다. 역전 주차장에 버스가 멈추었을 때가 약 저녁 5시 즈음 됐다. 본래 대로라면 21시 기차였지만 성실한 가이드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한 시간 연착 되어 밤 열 시라더니, 나중에는 역에 가서 물어볼 때마다 30분씩 연착 된다면 이제는 아예 다섯 시간 후인 새벽 2시 30분이 되어야 출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대중은 '다음에 기차 타러 다시 오라는 뜻'으로 새기고, 그냥 버스를 타고 델리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야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려 열네 시간 동안은 밤새 달려서 드디어 델리에 도착했다. 잠시 호텔에 들러 지친 몸을 씻고 인도에서의 마지막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는 바로 공항으로 갔다. 마침내 에어 인디아를 타고 날아와 폭설로 온통 지천이 하얀, 하얀 나라 고국 땅에 슬며시 미끄러져 내렸다. 아무도 반기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공항에서 제일 짠 집을 찾아 귀국기념 소찬 공양을 정 깊은 도반 스님들과 가이드와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려할 즈음 친절하한 가이드가 일러주기를 "아마, 요 며칠은 여행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라고 하더니 바로 그 즉시 머리가 멍해졌다. 온 세상이 다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이 마법의 후유증은 내내 지~속~ 됐다... [定慧社]

바다

편집실



이 만화에 등장하는 돼지와 물고기와 새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관점에서 남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재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로 다툼이 일어나 화합이 되지 않기도 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들 때가 있다. 마치 돼지(부타-일본식 발음)의 눈에는 바다로 보이지만, 물고기에게는 살아가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새에게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식탁이 될 수 있듯이...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남은 틀리다고 단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강원에서 대중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定慧社

※출처 : 「부처와 돼지 1」- 우리는 모두 돼지/ 들녘
고이즈미 요시히로 지음/ 김지룡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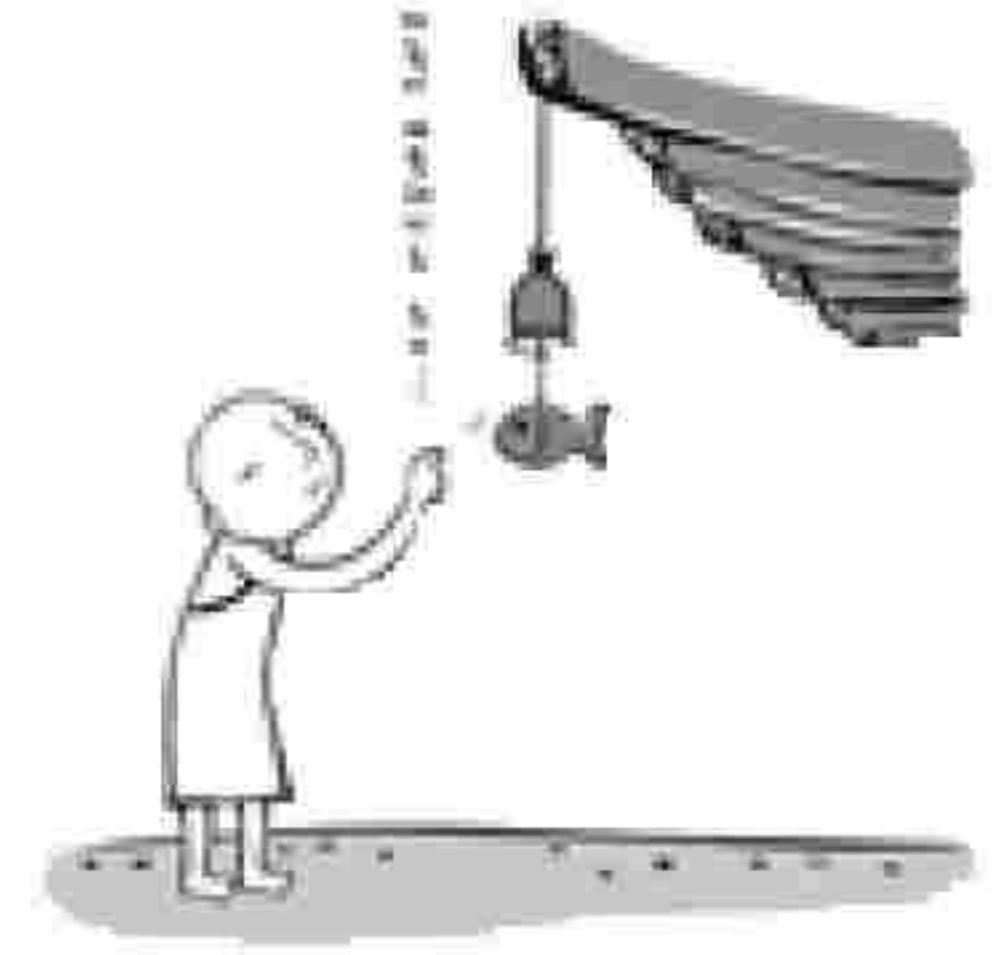
경인년 강원 소식

편집실



- 3월 13일 법정 스님의 다비식이 있었습니다.
- 4월 3일 동안거 방학을 마치고 강원 복귀하였습니다.
- 4월 6일 풍암영각에서 춘계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 4월 18일 「송광사 도량안내 특강」 고경스님
- 4월 19일 경인년 원족산행 - 장성 백양사, 운문암
- 4월 28일 법정 스님 49재 막재 - 대웅보전 앞마당
- 5월 9일 ~ 10일 삼월불사, 제 800주기 보조국사 종재
- 5월 27일 하안거 용상방을 정혜사 큰방에서 짚습니다.
- 5월 28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하안거 결제 법어
- 5월 31일 일각대선사 추모재
- 6월 27일 ~ 7월 3일 동주 원명스님의 염불특강이 있었습니다.
- 7월 7일 감자캐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7월 8일 반결제 원족산행 - 조계산
- 7월 21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반결제 법문
- 8월 18일 취봉선사 추모재 봉행 - 지장전
- 8월 28일 ~ 9월 3일 백중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9월 3일 하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어 - 대웅전





- 10월 3일 탑전 정보경화 보살님 영결식, 다비식
- 10월 7일 보조국사열반 800주기 학술세미나 참가
- 10월 9일 효봉대선사 추모재
- 10월 16일 풍암영각에서 추계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 10월 21일 ~ 22일 전국승가학인연합대회 참가 - 직지사
- 10월 29일~12월 10일 도량 곳곳에서 낙엽운력이 있었습니다.
- 10월 30일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 기념 산사음악회
- 11월 19일 동안거 용상방을 큰방에서 짚습니다.
- 11월 20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결제법어 - 사자루
- 11월 21일 고려불화대전 관람 - 국립중앙박물관
- 12월 8일 겨울철 소방훈련 실시 - 대웅보전 앞마당
- 12월 13일 대웅보전 개금불사 점안, 금강산림법회 회향
- 12월 14일 ~ 1월 3일 대교반 스님 졸업여행 - 인도
- 12월 18일 구산대선사 추모재
- 12월 21일 동지 팔죽 새알 빛는 운력 - 정혜사 큰방
- 12월 22일 승보전 개금불사 나한상 이운식
- 12월 25일 「티벳불교의 수행체계」 특강 - 텐진랑카 스님
- 2월 10일 ~ 17일 동안거 해제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유나스님, 주지스님, 원주스님, 강주스님, 약천사, 덕현스님, 보현선원, 약사암, 통도사 정목스님, 대승사, 강원21회 동문회, 봉갑사, 관음선행장 학회, 총무스님, 대경스님, 여경스님, 원각사, 동당스님 상좌회, 일본 관음성지 순례단, 두운스님, 범혜스님, 진화스님, 금강원 주지스님, 지현스님, 최혜경(송원회), 박정란, 한창규(진주), 강재섭 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방장스님, 덕현스님, 보현선원, 정행스님, 보리스님, 원각사 주지스님, 여일스님, 오경스님, 유나스님, 증심사, 본행스님 반연, 만경사 주지스님, 총무원장스님, 지현스님, 길상사, 대경스님, 범어사, 무위사, 백양사, 유나스님, 덕조스님, 관음사, 도솔정사, 자용스님, 흥연스님 반연, 무각사, 석불암, 봉은사, 증심사, 현진스님, 현호스님, 백양사 주지스님, 강주스님, 원통스님, 관음사 주지스님, 신곡암, 동당스님 상좌회, 운주사, 구산스님 문도회, 진만스님, 해청스님, 백양사 시견스님, 혜강스님 반연, 시덕스님 반연, 진화스님, 학감스님 반연, 강주스님 반연, 여일스님 반연, 원주스님 반연, 도갑스님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강원 동문회, 김숙희, 김영선, 김석진, 김선아, 김은경, 김창환 님

대교반 졸업여행 후원하셨습니다

유나스님, 영선스님, 주지스님, 도갑스님, 포교스님, 재무스님, 원주스님, 율주스님, 율원스님 다수, 강주스님, 강사스님 다수, 운주사, 금용암, 내소사, 원각사, 증심사, 길상사, 만연사, 순천 대승사, 법련사, 쌍봉사, 보성 대원사, 동주원명스님, 통도사 강주스님, 덕조스님, 정효스님, 봉은사 주지스님, 성우스님, 두운스님, 무각사 중현스님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정혜사 소임을 보면서, 선배 스님들께서 남기셨던 주옥같은 글들과 법문들을 얼마나 대중들에게 회향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꾸준히 법향을 전달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강원 소식지인 정혜사誌가 1년에 한 번 출판되면서 겨울에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송광사 강원의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 새로운 경험이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도반스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인년 송광사 결제 대중



하안거 결제대중



동안거 결제대중



아미타불재하방阿彌陀佛在何方
착득심두절막망着得心頭切莫忘
염도염궁무념처念到念窮無念處
육문상방자금광六門常放紫金光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가를,
마음 머리에 붙들어 놓침없이 생각하되,
생각이 다한 끝,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눈, 귀, 코, 입, 온몸에서 붉은 금색광명 쏟아지리라.

- 나옹 혜근 선사 -